AJOU VISION 4.0

연결지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아주대학교

시간 속에 새겨지는 자랑스런 50년
마음 속에 다짐하는 아주비전 50년
세상을 이끄는 세계 중심대학으로-
연결지성의 세계적 플랫폼으로-
대학을 바꾸는 대학에서
세상을 바꾸는 대학으로 나아갑니다

꽃이
흐드러지게 핀
아침이면
맑은 물병이 놓이고

앓고 난
자신이
새로운 자신으로
깨어나는 걸

당신만
모르고 있습니다

AJOUINSIGHT
AJOU UNIVERSITY QUARTERLY MAGAZINE 2020 12월호 Vol. 30

봄여름가을겨울
<아주인사이트> 2020(4353) 겨울호 통권 30호

AJOUINSIGHT

AJOU UNIVERSITY QUARTERLY MAGAZINE 2020 | 20102 Vol. 30

CONNECTING MINDS

꽃이
흐드러지게 핀
아침이면
맑은 물병이 놓이고

앓고 난
자신이
새로운 자신으로
깨어나는 걸

당신만
모르고 있습니다

신현림 시인·사진작가

CONTENTS

04 총장 신년사_ 박형주 총장 **08 특집 인터뷰_** 파란학기제 수상팀 **10 특집 리포트_**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12 특집 리포트_** 스타트업 아주3by3
14 특집 인터뷰_ 임재성 산학부총장 **15 특집 리포트_** 기업협업센터(ICC) 소개 **16 포토에세이_** 신현림 **18 아주의 울타리를 떠나며_** 소의영 의학과 교수 外
21 포토스케치_ 도서관 **22 괴짜 같은 진짜_** 이교범 전자공학과 교수 **24 학문의 생활화 생활의 학문화_** 문남식 수학과 교수 **26 총장이 간다_** 2020 CES 탐방기
30 전공소개_ 간호학과 **33 교직원마이크** **34 뉴스** **42 스페셜 스토리_** 김우중 회장 영면 **46 솔선기부_** 이종철·이재환 부자

CREDITS

PUBLISHER president 박형주
EDITOR office of communications 강영화, 이솔
PHOTOGRAPHER sssaunastudio 김성재
Edit & Design office of communications 권지영, 박소정
plus81studio 권라희, 노윤영, 김영주, 임정미
SUPERVISOR office of communications 이건

<AJOUINSIGHT> 이 간행물 내용중 상의 후
복제 및 전재를 환영합니다.
<AJOUINSIGHT> 구독이나 수신거부·주소 변경은
이메일(hongbo@ajou.ac.kr)로 요청바랍니다.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Tel.031-219-2114

Copyright ⓒ 2020 Ajou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내일을 향한 아주의 발돋움

배움의 즐거움이 흐르는 대학으로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망의 2020년을 맞이하는 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롭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대학의 위기가 엄습해 왔지만 아주인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중앙일보 대학 평가'에서 전국 11위를 연속 기록했고, 네이처지가 진행한 '전 세계 설립 50년 이내 대학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1000개 대학 중 54위에 랭크되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취·창업 평가'에서는 전국 6위에 올랐고, 아주대병원은 뉴스위크지의 '세계 100대 병원'에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아주대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결지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으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선포하며, 우리의 뜻과 의지를 널리 알렸습니다. 다가오는 개교 50주년을 앞두고 재도약을 위한 도전을 마주하게 될 새해에도, 구성원들의 역량을 모아 대학 발전 계획을 본격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주비전 4.0의 요체는, 대학은 다양한 정신이 공존하고 협력하는 광장이며 교육과 연구, 행정의 연결성 극대화를 통해 지식의 생산과 전수 및 활용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측면에서 대학의 제1미션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에 아주대는 학생들의 활동기반·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늘려 나가고자 합니다.

최근 대학 자체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취업률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입학성적이나 졸업학점보다도 학생의 비교과 참여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대학은 온라인 교육 체계를 보완하고 비교과가 강한 대학으로서의 선도 역량을 강화, 학생들이 미래에 가장 필요한 역량인 '생각의 힘'을 기르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의 '파란학기제'를 더 강화하고, 사회와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파란학기 익스트림'도 새로운 차원에서 키워 나가고자 합니다.

연구의 측면에서는, 거대 연구그룹 지원을 통해 '연결된 연구'를 구현하는 정책을 더 힘 있게 밀고 나갈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협력해서 임팩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글로벌 추세와 맥을 같이합니다. 지난해 대폭 강화한 신규 임용 교수에 대한 연구비 지원 제도를 견고히 하고, 우수 신진 연구자를 키우기 위해 도입한 POSTDOC 지원제도도 이어가겠습니다. 제공된 연구비에 대한 성과 제출 기한도 길게 가져감으로써, 보다 충실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아주대학교의 연구 지원 정책은 장기적 안목에 바탕을 두고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올해는 캠퍼스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2개의 대형 건물 신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650평 규모의 종합실험동과 8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입니다. 두 건물의 준공을 통해 아주 학생들과 교수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학업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학생회관과 대학 광장을 비롯한 교내 문화 및 편의 공간 개선을 통해 머무르고 싶은 캠퍼스, 공부가 즐거운 캠퍼스를 구현할 것입니다.

대학의 글로벌화를 위해 추진해 온 교육 시스템 수출 계획도 첫 결실을 맺어서, 올해 9월1일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이공분야의 교육·연구 혁신 모델을 전수하겠다는 목표로 AUT를 개교할 예정입니다.

2020년 새해에도 아주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생각하고 연결할 줄 아는 학생을 키우는 곳, '배움의 즐거움'이 흐르는 대학을 같이 만들어 갑시다. 2020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행복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총장 박형주

다시, 사회를 이끄는 대학으로!

아주대는 '연결지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이라는 비전을 담아 중장기 발전계획 아주비전4.0을 수립, 실천해 가고 있다. <아주인사이트>는 교육과 연구, 캠퍼스 문화와 글로벌 전략에 대한 청사진이 담긴 아주비전4.0의 부문별 주요 내용과 성과를 시리즈로 소개해 왔다. 이번 호에서는 지역사회·산업계와의 협력, 사회 변화에 발맞춘 교육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나아가겠다는 아주대의 지향과 발걸음을 조명한다. 책과 강의실을 넘어 현장과 직접 맞닿은 생생한 경험을 돕는 아주대학교의 여러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선 아주대 학생들의 경험과 성과, 기업들과의 협력을 위해 문을 연 기업협력센터(ICC)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정리 **이솔** 커뮤니케이션팀

강의실 밖 파란의 실천, 파란학기 수상팀 소개

도전을 나누다 세상을 바꾸다

'파란학기제-아주 도전학기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직접 설계한 도전과제를 수행하고 학점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대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6년부터 8학기 동안 이어져 온 파란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은 본인의 관심 분야에 직접 뛰어들어 탐구하고 고민하는 생생한 경험을 해왔다. 평소 의문을 갖고 고민해 왔던 사회 문제에 대해 현상과 해법을 연구해 온 사례도 나왔다. 학교는 앞으로 '파란학기-Extreme'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들의 도전을 더욱 장려할 계획이다. 2019년 2학기, 세상을 바꾸는 도전에 나서 수상의 영광을 안은 두 팀을 소개한다.

글 **권라희**
사진 **김성재**

게임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죠

'훌륭한 뱃사공상' 아몬 팀

소방관의 화재 구출 작전을 소재로 한 모바일 게임 개발

팀원_ 공병국, 김용현, 김태윤, 김희수, 백수영, 임채석, 윤현민, 조예진, 최선, 하헌영 / 미디어학과
지도_ 오규환 미디어학과 교수

게임 속 몬스터처럼 사람들을 놀라게 해 주고 싶다는 뜻에서 '아몬(아주 몬스터)'이라 팀명을 지은 이들은 경쟁하고 죽이는 것이 아닌 '시리어스 게임(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임)' 개발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 소방관들의 고충이 눈에 들어왔다. 플레이어가 게임 속에서 직접 소방관이 되어 화재 현장에 뛰어든다면 그들의 애환을 이해하고 알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처음 품었던 작은 생각은 시간이 흐르며 몸집을 키웠고, 결국 현실이 되었다.

아몬은 공병국 팀장을 주축으로 총 10명이 기획, 프로그래밍, 그래픽, 홍보 등으로 팀을 나누어 6개월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2학기 시작 전 미리 모든 기획과 소재를 제작해둔 상태였고, 이후 프로토 타입을 만들고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프로젝트 도중 지도를 맡은 오규환 교수의 제안으로 글로벌 게임챌린지에 참여해 수상(3등)의 영예를 안았는데, 이는 아몬 팀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겨 줬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다. 학업과 병행하며 일정을 조율하고 프로그래밍, 디자인, 특수효과, 마케팅 등을 수행해야 했다. 기획 의도를 실제 게임에 적용하는 과정이 특히 힘들었다는 아몬 팀. 학교와 학과, 지도교수,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의 도움을 바탕으로 아몬은 파란학기를 통해 얻은 것이 많다고 자평했다. 게임을 좋아하는 미디어학과 학생들이 게임 제작의 전반적인 과정을 직접 기획하며 실행해 완수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는 것. 더불어 게임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음을 증명해 더없이 기쁘다고 전했다.

"게임 홍보를 위해 학교와 가까운 경기소방재난본부를 무작정 찾아갔어요. 홍보뿐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를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해주셨죠. 넥슨 임치훈 팀장님께도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현업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게임이 제작되고, 프로토타입 개발 이후 사업화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질적인 조언을 해 주셨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아몬 팀은 그보다 '끝까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누구나 초기에는 거창한 계획을 품지만, 이내 난관에 부딪치며 대개 실망스러운 결과로 마무리한다. 자신들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계획을 조정하며 마무리해야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아몬 팀의 말이다.

우리가 받은 상은 '황금 성공상'입니다

'황금실패상' 가치타다 팀

시각장애인을 위한 리모콘형 버스인식기 개발

팀원_ 한혜경, 이효령 / 영어영문
문여은, 이종현, 주소영 / e비즈
지도_ 김병주 경영학과 교수

시각장애를 가진 한혜경 학생은 버스 정류장에서 당혹감을 느낀 적이 여러 번이었다. 버스 번호를 볼 수 없으니 어떤 버스를 타야 하는지 헷갈렸고, 설령 탔다 하더라도 하차벨 누르는 일이 '전쟁' 같았다. 팀장을 맡은 한혜경 학생과 팀원들은 여기에 착안해 '시각장애인의 버스 이용 불편 해결을 위한 솔루션 개발'이라는 주제를 설정, 프로젝트를 구체화했다.

브랜드화 및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를 진행했고, 첨단교통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시제품을 제작했다. 더불어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회를 통해 버스 승하차 문제를 제기하며 그 해답으로 가치타다 팀의 시제품을 소개했다. 상용화를 위해 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실시하기도 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횡단보도마다 설치돼 있는 음향유도신호기를 접목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보통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리모컨을 들고 다녀요. 버튼을 누르면 보행 신호등의 상태를 알려주죠. 우리 팀의 아이디어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도착했을 때 이 리모컨 버튼을 누르면 버스 번호가 재생되는 방식입니다. 다른 버튼을 누르면 하차벨이 작동하고요."

한혜경 학생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경직된 사회 분위기를 몸소 느꼈다. 버튼을 누를 때 소리가 나면 이용자들이 민원을 제기할 거라는 관계자의 말에는 암담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교통약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솔루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는 수상으로 이어졌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시각장애는 그중 하나일 뿐이라 생각해요. 지레 포기하지 말고 저희들처럼 도전해보세요. 파란학기제를 이용하면 더 좋겠죠. 학교 지원을 받으면 한결 수월하게 꿈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우리 팀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덕분에 상을 받았고, 장애인의 버스 이용 불편 문제가 많은 미디어에 소개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황금 성공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파란학기제
아주대학교 도전학기 프로그램

아주대가 2016년 처음 시작한 '파란학기제 - 아주 도전학기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스스로 도전과제를 설계해 학점을 받는 자기 주도형 학습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인문, 문화·예술, 봉사, 국제화, 산학협력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제한 없이 도전 과제를 설계할 수 있고 학교나 교수가 제안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거나 이를 수정해 신청할 수도 있다. 지난 2016년 1학기부터 2019년 2학기까지 총 8학기 동안 총 775명의 학생들이 파란학기제에 참여했다. 2019년 2학기에는 '파란학기-Extreme'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에 나서기도 했다. ▲까마귀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전선 보호물 제작 ▲인근 상권을 살리기 위한 시장 분석 ▲아주대 축구부가 대학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조사 등의 과제가 지난 2학기에 수행됐다. 아주대는 앞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을 더욱 장려·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의실에서 경험하는 현장 -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소개

현장의 어려움, 머리를 맞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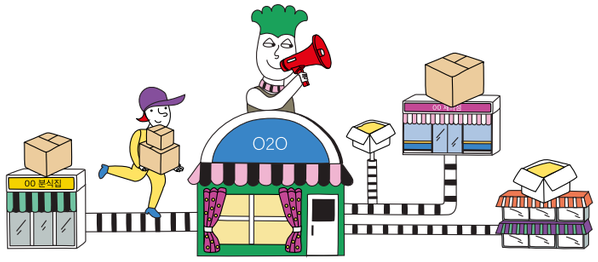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은 학생들이 실제 산업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 과정에 걸쳐 하나의 작품을 기획-설계-제작하는 프로젝트다. 아주대는 3학년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캡스톤 디자인(종합설계) 교과목을 개설, 학생들이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19년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의 대표작을 소개한다.

장리 **노윤영**
일러스트 **박하**

자영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엄지 척' 플랫폼

떨이 음식 O2O 판매 플랫폼 '떠리매처'

올 때 소보루 팀



참가_ 최요셉(금융공학), 김수진(e비즈), 김태훈(경영), 이수한(산업공학), 이지영(경영)
책임_ 고종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떠리매처'는 품질에는 문제가 없으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판매하려는 판매자와 품질에 하자가 없는 식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길 원하는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지향한다. 포장된 가공식품이 아닌 제과점과 반찬가게, 분식집 등 개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떨이 상품이 그 대상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 매장에서 직접 만든 데다 유통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은 떨이 식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또한 사용자가 주변 상점의 식품을 검색해 결제하면 판매자가 이를 신속하게 배달해준다는 특징이 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필기 OK!

필기 보조 서비스 Tennel Note

UnderTheChair 팀

참가_ 정진우, 어수민, 임진희, 황진우, 홍지호 / 소프트웨어
책임_ 윤대균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정진우 학생은 수업 때마다 고민이 많았다. 노트북으로 수업 내용을 필기하려고 하지만, 키보드 자판과 마우스로는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팀을 이뤄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도 필기할 수 있는 기능과 그것이 PC로도 그대로 구현되는 동시 동기화 기능이 담긴 Tennel Note를 개발했다. 웹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데, 해당 서버에 접속해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필기 기능이 구현된다. 더불어 노트북을 구동하면 큰 화면으로도 사용자의 필기 내용이 실시간으로 구현된다. 모바일 화면은 작지만 해당 문서를 축소시키지 않고 확대해 보여주기 때문에 필기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기능은 보완하고 가격은 낮췄다

구동 방식을 변경한 휠체어 '4Bar체어'

GEARMAX 팀

참가_ 김영준, 김상서, 나선엽, 박민규 / 기계
책임_ 유재석 기계공학과 교수

4Bar체어는 기존 휠체어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용자를 위해 제작된 신개념 휠체어이다. 기존 수동 휠체어는 바퀴에 부착된 손잡이를 사용해 구동시키는 데 사용자의 힘이 많이 들어가고, 팔과 몸통을 함께 움직여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전동 휠체어는 편하긴 하나 가격이 비싸다. 팀은 구동 방식을 변경해 힘을 덜 들이고도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수동 휠체어를 개발했다. 4Bar-Link라 불리는 시스템을 개발해 자세 변화를 줄이고 움직임의 효율은 높인 것. 사용자의 손이 닿는 곳에 위치한 네 개의 바(Bar)가 상호 작용을 통해 사용자의 구동을 돕는데, 기존 수동 휠체어에 비해 구동이 훨씬 쉽다. 브레이크와 발전기를 통해 안정성 역시 더했다. 가격은 기존 수동 휠체어보다 10만원가량 비싸지만 전동 휠체어보다는 훨씬 저렴하다. 이미 시제품을 여러 차례 제작해 산학협력 엑스포 등에 공개한 바 있는데, 많은 이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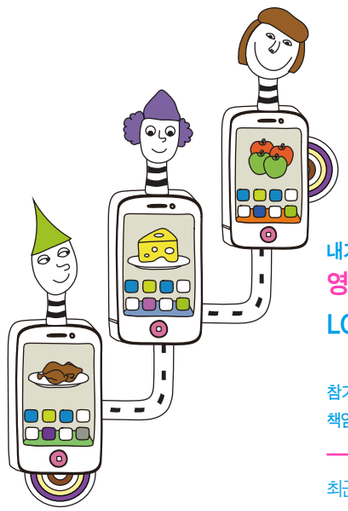
오직 나만을 위한 메뉴 추천

개인 맞춤형 메뉴 추천 '니맛내맛' 애플리케이션

맛동산 팀

참가_ 방진실(수학), 백승주(산업공학), 유세정(수학), 유은정(건축)
책임_ 고종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맛동산 팀이 개발한 '니맛내맛'은 취향과 알레르기, 종교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식습관을 반영해 각 개인에게 알맞은 메뉴를 추천해주는 맞춤형 메뉴 추천 애플리케이션이다. 식재료 데이터 수집과 외국인을 포함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그 기능을 구체화시켰으며 콘텐츠 기반 필터링 알고리즘, 협업 기반 필터링 알고리즘을 활용해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가입 시 알레르기, 채식, 종교 등 식습관 취향을 입력하면 그에 맞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가 그중 한 메뉴를 선택하면 관련 음식을 판매하는 근거리 식당을 검색해 보여주는 식이다. 결정 장애에 시달리거나 취향 때문에 메뉴 고르는 게 고민인 사람들을 위한 이 애플리케이션은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 '2019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을 받았다.



당신의 꿈을 영화로-

브랜드 메이킹

오합지졸 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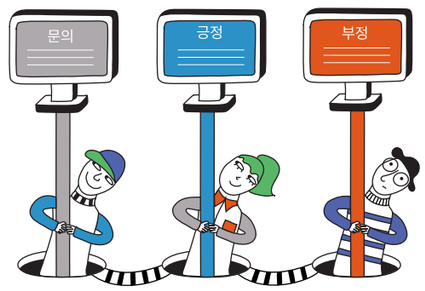
참가_ 김량희(문화콘텐츠), 김혜윤(미디어), 박혜인(문화콘텐츠), 양성은(미디어), 여인수(미디어), 윤찬호(경영), 홍종혁(미디어)
책임_ 강경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내 꿈을 영화로 보여준다면? 오합지졸 팀의 브랜드 메이킹은 사람들의 꿈을 영상으로 제작해 상영한다는 '영화 같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 지난해 처음 시도한 대상 타깃은 할머니였다. 전쟁 이후 생활고 때문에 학업과 멀어지면서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할머니 세대를 응원하고 싶었다고. 첫 작품은 수원제일평생학교와 연계해 만들었다. 학교에 다니는 할머니들을 수차례 인터뷰하며 얻은 내용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직접 각본을 쓰고 연출을 맡았다. 그리고 할머니 나이대의 전문 배우들을 섭외해 완성도를 높였다. 그렇게 완성한 첫 영화에 대한 반응은 아주 뜨거웠다. 이 작품의 메시지를 담은 키링, 책갈피 등 상품도 제작해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나온 수익금은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교육기관에 기부한다. 앞으로도 청년, 청소년 등 다양한 타깃을 대상으로 영상을 제작하며 '우리 모두의 꿈'을 무한 응원할 계획이다.

내가 원하는 댓글만 쏙쏙 골라 읽을 수 있다면?

영상댓글 분류 서비스

LOL 팀



참가_ 임윤진(소프트웨어), 금예인(영어영문), 김주영(사학)
책임_ 한경식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최근 인기를 모으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팬들과 댓글로 소통하며 팬덤을 강화시킨다. 하지만 수없이 쏟아지는 댓글이 모두 유익하거나 좋은 글일 리는 만무하다. LOL 팀은 이렇듯 골치를 앓고 있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영상댓글 분류 서비스를 개발했다. 댓글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서비스를 통해 크리에이터가 좀 더 손쉽게 채널을 관리하며 질 좋은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다는 것. 실제 크리에이터 9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에서도 댓글을 분류하고 정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얻었다. LOL 팀은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 중 7000여 개를 읽고 이를 '요청, 문의, 긍정, 부정, 기타'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을 각 성격에 맞게 분류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현재는 영어만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한글 버전을 제작할 계획이다.

내 일은 내가 만든다

아주대는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가고 있는 젊은 창업가들을 위해 다각도의 입체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 두고 있다. 대학이라는 공간 안에서 학생들이 더 많이 도전하고 성공하며, 때로는 크고 작은 실패를 통해 성장하기를 바라는 덕분이다. 아주대의 맞춤형 창업 지원은 '스타트업 아주 3by3(Startup Ajou 3by3)'라는 모델로 호평을 받고 있다. 학생들은 정규 수업을 통해 기업가 정신과 역량 등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고 이후 창업 동아리와 특강 등에 참여하며 실전 경험을 키운다. 이어 실전 창업에 뛰어드는 초기 창업자들을 위해 학교는 글로벌 경진대회 참여와 창업보육센터 입주 연계 등의 실질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아주대의 맞춤형·단계별 창업 지원 시스템을 소개한다.

정리 이솔 커뮤니케이션팀

STARTUP-AJOU 3by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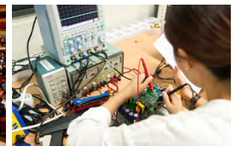
스타트업 아주 3by3

창업 유형을 기술혁신형·융복합형·신산업창출형 3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3단계로 지원하는 전략. 3단계 지원은 교육(Teaching)-지원(Touch)-보육연계(Training)로 나뉜다.

1

교육 Teaching

기업가 정신 및 창업 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창업 교과목을 정규 과목으로 개설했다. ▲기술창업과 경영 ▲기업가 정신과 경영 ▲공학설계와 지식재산권 ▲창업론 ▲발명과 특허 ▲소프트웨어 창업론 등의 강의가 마련되어 있다. 기술혁신형·융복합형·신산업창출형 3가지 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교과목 라인업이다.



2

지원 Touch

창업 동아리와 특강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한다. 창업 전문가의 멘토링과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과 비용(장학금)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주대 교내에는 학생들이 시제품 설계와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1051㎡ 규모의 무한상상공간(Creative Factory)도 마련되어 있다.

3

보육연계 Training

아이디어의 고도화가 필요하거나 실전 창업에 나서는 단계의 창업가들을 위한 지원이다. 창업캠프 및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창업보육센터 입주 연계,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등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아주대 인근 지역에 위치한 기관 및 해외 기관들과 연계해 심화 교육과 지속적 인큐베이팅이 이어지도록 돕고 있다.

도전하고 참여하고 경험하는 아주인을 응원합니다

21세기 대학에서 실전형·현장중심형 교육이 중요한 이유

과거에는 한 분야의 지식, 하나의 뛰어난 기술만으로도 평생의 업이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술과 노하우의 수명이 짧아지면서 많은 양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잘 배우고 활용하는 '학습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사회 변화의 속도에 맞춰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기술과 노하우를 누구보다 잘 배워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전형 교육은 이러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변화를 읽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는 과정 속에서 학습하고 활용하는 방법, 협업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점 관리·영어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지난해 아주대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72%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했을 뿐 아니라 취업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인 유지 취업률 역시 89%로 매우 높았습니다. 학교의 자체 분석 결과, 취업에 영향을 준 요인은 학점, 영어 성적 같은 스펙보다 비교과 활동 참여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도전하고, 참여하고, 경험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대는 다양한 경험과 틀을 깨는 도전을 하기에 좋은 학교입니다. 자기주도형 도전학기인 파란학기제와 더불어 LINC+사업단은 ▲어드벤처 디자인 교과목 ▲프로젝트형 현장실습-얼리버드 현장실습과 같은 프로젝트를 마련해 여러분의 도전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는 어떻게?

아주대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상과 역량을 모델링, 창업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이론과 실습이 조화된 교수법의 확산을 통해 현장형 창업 강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학생이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개발 단계에서 ▲기술 자문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법률, 세무 자문과 투자연계까지 돕겠습니다. 문제해결형 커리큘럼 확산을 위해서는 현재 1~2학년 이공계열 학생들을 위해 개설되어 있는 자기주도 프로젝트 교과 '어드벤처 디자인 교과목'을 인문사회 계열로 폭넓게 확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재성
산학부총장 겸
LINC+사업단장

LINC+ 사업단은?
2017년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선정된 아주대는 이 사업을 통해 산학협력 혁신 생태계 '아주 밸리(Ajou Valley)'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대학,기업,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기반을 만들고 그 안에서의 혁신을 통해 상생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 아주대 LINC+사업단은 학생과 산업을 강하게 연결하고(Connect), 기업과 진심으로 협력하며(Collaborate) 지역사회와 아낌없이 주고받는(Contribute) '트리플-C'를 핵심가치로 산학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Industrial Cooperation Center

지역 기업들과 함께하는 산학협력 클러스터

4대 특화분야 키우는 기업협업센터(ICC)

아주대가 인근 지역 기업체들과 함께 대학의 특화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업협업센터(ICC, Industrial Cooperation Center)를 열었다. 특화분야는 총 4개로 ▲바이오·헬스케어 ▲스마트 모빌리티 ▲신재생 에너지 ▲AI·빅데이터다. 아주대는 참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와 R&D 자문, 인력양성 등의 종합지원을 통해 기업체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첨단의료바이오_ 바이오·헬스케어

바이오·헬스케어 관련 기술 고도화 및 산업화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활동을 지원. 기술 산업화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참여 기업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 중.

책임 김수동 약학과 교수
구성 산·학·연·관 총 59명 참여

ACES 모빌리티_ 스마트 모빌리티

ACES(Automated, Connected, Electrified, and Smart) 모빌리티를 위한 연구센터로, 연구 개발은 물론 관련 전문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계획. 앞으로 대형 연구그룹 구축을 통해 대형 국가과제 유치에 나설 예정.

책임 송봉섭 기계공학과 교수
구성 10인의 교수와 21개 기업

ICC
Industrial Cooperation Center

스마트 에너지(그리드&신소재)_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에너지 산업의 핵심인재 양성과 기술이전 촉진 및 상용화 기술 공동 개발 확대를 도모함.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한 기술사업화 지원 시스템을 확보하고 대학-산업체 간 우수 인재의 선순환 교류를 지원할 계획.

책임 이주연 산업공학과 교수
구성 산·학·연 총 43명 참여

지능형 센서 및 의료기기_ AI·빅데이터

지능형 센서 및 의료기기 관련 ICC로 수도권 소재의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 산업체의 요구 사항을 수렴해 교육 과정 개선에 적용하고 대학의 연구 역량 및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계획. 산학 공동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

책임 김상인 전자공학과 교수
구성 산·학 총 40명 참여

당신만 모르고 있어요

눈이 내리고 비가 내려도
당신이 어디에 있든
나는 따라갈 수 있어요
화살표는 발밑에 있고
내 가슴이 먼저
당신을 알아보고 간답니다.

당신이 쓴 모자, 입은 옷
슬픈 일, 이루지 못한 일,
모진 꿈까지 편해지게 어루만집니다

밤이면 허물이 벗겨져 날아가고
화살표 따라 새 계단이 흘러내리고
꽃이 흐드러지게 핀
아침이면 맑은 물병이 놓이고
앓고 난 자신이
새로운 자신으로 깨어나는 걸
당신만 모르고 있습니다

신현림 시인, 사진작가

경기 의왕 출생이다. 아주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후, 상명대 디자인대학원에서 파인아트를 전공·졸업했다. 〈현대시학〉으로 데뷔해 전방위적인 작가로, 시집 〈지루한 세상에 불타는 구두를 던져라〉, 〈세기말 블루스〉, 〈해질녘에 아픈 사람〉, 〈침대를 타고 달렸어〉, 〈사과꽃 당신이 올 때〉를 펴냈다. 사진작가로 〈아!我,인생찬란 유구무언〉, 〈사과, 날다〉, 일본 쿄토 게이분샤 서점과 갤러리에 채택된 사진집 〈사과여행〉이 있다.

아주의 울타리를 떠나며

2019년 2학기를 끝으로 일곱 분의 교수가 정년을 맞아 아주 캠퍼스를 떠난다. 30년 가까이 함께한 아주의 강단을 뒤로 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모아봤다.

새날의 연속이었던 아주에서의 시간

소의영 교수

의학과

재직 1992.03~2020.02

아주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

아주대에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은 1991년. 당시 의과대학은 병원 신축을 위해 땅만 판 상태로, 율곡관의 일부 공간을 빌려 더부살이하는 신세였다. 다섯 분의 교수와 총명한 90여 명의 의과대 학생이 전부였다. 이것이 아주대학교의료원의 시작이었다. 정년이라는, 마디를 맺을 시점에서 돌이켜보니 희망 속에 새날의 연속이었다. 부속병원 건립 추진본부에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었고, 아주대 의과대학의 기틀을 함께 다지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다. 더불어 의사로서도 도전과 배움의 연속이었다. 외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의학부장부터 의료원장, 의무부총장까지 15년간 행정 일을 하면서 아주대의료원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이제 정년을 맞은 시점에서 우리 학교를 새삼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세계 100대 병원으로 선정된 아주대 부속병원(뉴스위크지), 교육·연구에 있어서 국내 선두격으로 고도성장하고 있는 의과대와 간호대를 겸비한 아주대의료원을 말이다. 돌이켜보면 행복했던 시절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어 뭉클하고 고맙고 감사하다.

나에게 '아주'는?

정년 즈음에서 되돌아보니 29년의 세월 속 우여곡절도 많았다. 부족하나마 학문적인 성과를 일구었고, 녹을 받고 몸담은 기관이 거듭 발전하고 있으며, 많은 훌륭한 동료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다. 이게 모두 아주대에 몸담고 있어 가능했음을 알기에 진정 감사할 따름이다.

후배 교수와 학생들에게 전하는 당부

이 글을 쓰는 지금은 아주대에서 일하는 마지막 달이다. 30여 년 동안 해온 평생의 업이었던 갑상선암 수술도 며칠 전 마무리하였다. 환자들도, 간호사들도, 나도 많이 아쉽고 서운하다. 마지막이라는 말을 들으면 언제나 아쉬운 마음이 든다.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조금 더 잘할 걸 하면서 후회된다.

아일랜드 태생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그가 남긴 글과 책보다 오히려 그의 묘비명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희극 작가인 자신의 이미지를 반영하듯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줄 알았지(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라는 글을 자신의 묘비에 새겨 넣게 하였다. 해석에 여러 논란이 있으나 결국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살라는 말이다. 이제는 1년 365일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임을 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본인이 노력하여 좋은 성과가 있으면 본인의 가치가 높아지고, 주위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그에 따른 인정과 대우를 받을 것이며 더불어 학교의 명성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못다한 이야기

몇 달 전부터 아주대병원 옆에 멋진 면모의 아주대학교 요양병원이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 이곳에서 건립준비 추진본부 일을 시작하였다. 가나긴 여정의 마디를 맺으면서,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아주대를 떠나나 아주대 울타리에서 희망은 계속 움트고 있다. 세한을 지나 소생하는 봄기운과 더불어 새 희망은 새 봉오리를 맺을 것이다. 우리 모두.

밤새 프로그래밍 과제를 돌리던…

김민구 교수

소프트웨어학과

재직 1981.03~2020.02

아주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

1981년 부임해서 최경희 교수님과 학생들의 프로그래밍 과제를 밤새우며 돌려주며(당시에는 프로그램을 전산실에서 직접 돌려주어야 했다) 디버깅을 해주었던 것. 그래서인지 당시 학생들의 프로그래밍 실력은 최고였던 것 같다. 또한 1989년 미국에서 귀국해 4학년 학생들과 제주도 수학여행을 갔을 때도 기억난다. 한 여학생이 맹장염인 줄 모르고 배가 아픈데도 참고 한라산에 올라갔다가 고통스러워하자 한 남학생이 업고 내려왔다. 결국 여학생은 복막염 수술을 받았다. 후에 그 여학생과 남학생은 결혼 소식을 전해 왔다.

나에게 '아주'는?

진정한 모교와 같은 곳

후배 교수와 학생들에게 전하는 당부

젊을 때 좀 더 도전했으면! 부디 많은 것에 도전하시기를!

못다한 이야기

아주대에서 받은 것이 너무 많아 감사드린다. 혹여 제 언행으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를 구한다. 아주대의 발전을 염원하며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내 인생의 여름, 그리고 가을

모선일 교수

화학과

재직 1985.09~2020.02

아주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

즐겁게 그리고 열심히 교육과 연구를 함께할 수 있었던 교수님들, 학생들 그리고 아주 구성원들께 감사한 마음이다.

나에게 '아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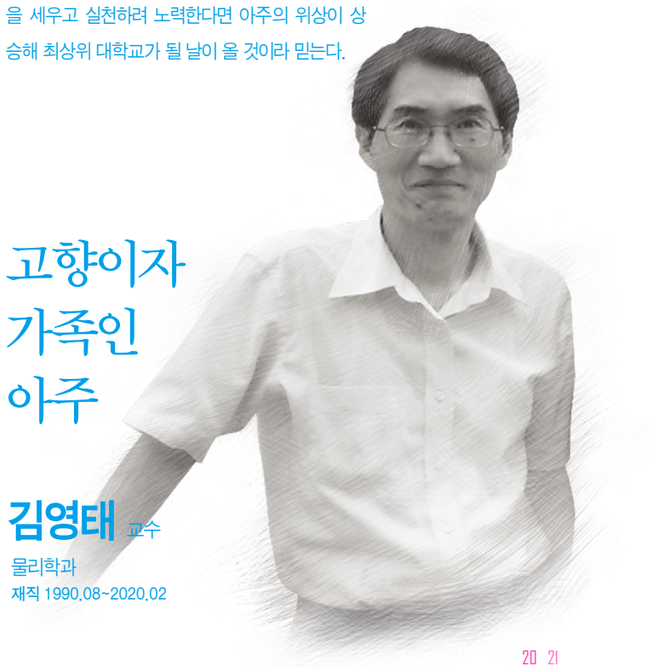
나에게 아주는 '내 인생의 여름'

못다한 이야기

'내 인생의 가을'을 맞아 아름답고 고운 색의 단풍으로 물들어 가도록 노력해 보려 한다.

고향이자 가족인 아주

김영태 교수
물리학과
재직 1990.08~2020.02



아주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

물리학과를 중심으로 출발한 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가 첫 BK21사업에서 대형 사업단에 선정된 일, 물리학과 학부와 대학원이 전국 물리학과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던 것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다. 자연과학대학 학장으로 있으면서 학생회 간부들과 축제를 기획하고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여행 경비를 지원해, 자기계발을 위한 일본 연수를 보냈던 것 역시 기억에 남는다. 학생들이 각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귀국 배편에서 토론하던 모습이 아직 생생하다. 개인적으로는 동아일보를 창간한 인촌 김성수 님을 기리는 인촌 펠로우십에 선발되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1년간 연구할 수 있어 행복했다.

후배 교수와 학생들에게 전하는 당부

아주 소식지를 통해 후배 교수들이나 학생들의 뛰어난 업적을 접하고 있다. 그렇게 꾸준히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한다. 때로 좋은 환경의 대학과 경쟁을 하다 보면 억울하거나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꾸준히 갈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 인정받는 사례를 살아오며 많이 보았다. 아주의 위상도 비슷하리라고 생각한다. 모든 아주 구성원이 공감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 노력한다면 아주의 위상이 상승해 최상위 대학교가 될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나에게 '아주'는?

아주는 나에게 고향이자, 가족과 같다. 서로 믿고 의지하고 배려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이다. 처음 부임했을 때 아주대는 교수 100명 정도의 아담한 대학교였다. 한 학기만 지나면 모든 교수를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들이 아주를 고향이나 가족처럼 느낄 수 있도록 현명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못다한 이야기

아주에 재직하면서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특히 학교 발전에 대한 시각차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착잡했다. 지나고 보니 누가 옳고 틀렸는지 정답은 없는 것 같다. 갈등은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아주 발전을 위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기를 바란다. 현명한 아주인들이 많다고 믿는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년퇴임 교원

김영길 교수
전자공학과
재직 1984.09~2020.02

민경도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재직 2008.09~2020.02

홍민선 교수
환경안전공학과
재직 1987.03~2020.02

정년퇴임 교수님들을 대표해 글을 보내주신 소의영, 김민구, 모선일, 김영태 교수님 감사합니다.

토론과 소통의 장으로-
도서관, 라운지가 되다

아주대 중앙도서관에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머물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추가로 마련됐다. 겨울방학 동안 진행한 리모델링을 통해 그동안 멀티미디어 자료실로 사용했던 도서관 북측 1층 공간이 새롭게 태어난 것. 이 공간은 2층 커뮤니티 라운지와 1층 북카페를 이어 주는 연결의 공간으로, 학생들이 토론과 소통을 통해 협업하는 창의적 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김성재**

어느 전력전자 연구자의 로큰롤 라이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기에는 직류(DC)와 교류(AC)가 있다. +극이든 -극이든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르는 전기가 직류라면, 교류는 +과 -극을 넘나들며 유영하듯 흐른다. 인생에도 직류와 교류가 있다. 전력전자를 연구하는 이교범 교수는 직류와 교류를 오가는 '로큰롤' 같은 삶을 살아왔다.

글 **노윤영**
사진 **김성재**

이교범

전자공학과 교수

이교범 교수의 첫 인상은 부드럽고 푸근하다. 하지만 자신의 일과 연구를 대하는 이 교수의 자세는 직류처럼 올곧고 명확하다. 전자공학 중에서도 '전력전자(Power Electronics)' 분야를 연구하는 그는 스무 명이 넘는 대학원생들과 함께 매년 10개 정도의 과제를 수행하고, 40편 이상의 논문을 펴내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력전자는 전력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여 전력 변환과 개폐에 관한 기술을 취급하는 학문입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전력 변환과 제어를 중심으로 한 응용 시스템 전반의 기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220V는 교류 전원이에요. 반면 가전제품과 노트북 등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들은 직류 전원을 필요로 하고요. 그 때문에 '교류직류변환기'와 같은 어댑터가 필요하죠. 전력전자는 이러한 시스템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교수는 연구실 학생들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가전제품, 전기차 분야 등과 관련한 전력전자 기술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그가 수장을 맡고 있는 전력전자연구실은 여전히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고 성과 또한 뛰어나다.

> "기업 현장과 맞닿은 실사구시가 아주의 힘"

> "실력으로 증명하라. 시작했으면 결과를 내라. 오늘도 불켜진 전력전자연구실"

"글로벌 기업과 대학의 기술 격차가 10년 이상 벌어진 다른 전기 및 전자공학 분야에 비해 전력전자 분야는 현장에서 2~3년 내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실무를 익힌 대학원생들이 원하는 기업에 원활하게 취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연과학과 달리 공학에는 유저가 원하는 타깃이 있습니다. 더 작게, 더 가볍게, 더 싸게 어떠한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학문이죠. 때문에 학생들은 철저히 실무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는 연구실 학생들이 우수한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또 도왔다. 아주대 동문들의 진출이 많지 않은 전력전자 분야에서 제자들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잣대는 뛰어난 논문뿐이었기 때문. 이 교수의 이러한 신념에 부응한 학생들의 노력 덕에 학계와 산업계에 진출해 제 몫을 해내는 졸업생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전력전자 분야에서 권위 있는 연구자로 주목 받고 있지만, 그는 학창시절 공부에만 몰두하는 모범생 스타일은 아니었다. 중학교 때는 유도선수이자 체육부장이었고, 2학년부터는 드럼을 배워 밴드 활동을 했다. 밴드 합동 공연을 열었다가 '근신' 처분을 받고, 수위가 더 높은 '정학' 처분을 받았던 친구들과 자연스레(?) 사이가 멀어지면서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됐다. 다니던 강남 8학군 고교에서 전교 유일 홀로 아주대에 입학한 뒤, 애정을 갖기 어려웠던 대학 생활에서도 버팀목은 드럼이었다. 1지망 의과대학에 떨어져 2지망 제어계측공학과에 다니게 된 차, 교내 밴드 스파이더스의 '딴따라' 생활 덕에 그는 비로소 학교에 재미를 붙일 수 있었다.

바쁜 와중에도 최근 이 교수는 학부 시절 함께 스파이더스에 몸담았던 후배들과 다시 뭉쳐 '스켓(Skeh)'이라는 밴드를 조직했다. 이 밴드의 주력 장르는 락(rock). 힘을 합쳐 공간과 악기를 마련하고 방음을 비롯한 각종 공사까지 직접 진행한 수원 모처 합주실이 그들의 아지트다.

"밴드 합주의 묘미는 개인 연습을 통해 생각했던 곡이 멤버들의 합주를 통해 새로운 곡으로 창조되는 바로 그 과정에 있습니다. 밴드는 적어도 3명 이상이 조화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다른 멤버와 호흡이 맞지 않거나 실력이 현격히 차이가 나면 그 조화는 깨질 수밖에 없죠. 밴드 연주에는 엄청난 수준의 협업이 필요한 셈입니다."

이교범 교수에게는 연구와 강의도 밴드 연주와 마찬가지일지 모른다. 항상 내 마음 같지는 않은 여러 생각들에 귀 기울이며 함께 '하나의 온전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일 말이다. 하지만 선장으로서 그는 궂은 날씨와 높은 파도를 탓하고 있지만은 않는다. 굳건히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 함께해야 할 일을 해 나갈 뿐이다.

1991년 아주대에 입학하고, 2007년에 모교에 교수로 부임해 30년을 아주와 함께 해온 이교범 교수가 후배이자 제자인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은 없을까. 그는 본인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미리 미래를 준비하라고 조언한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던 간에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따르는 게 좋습니다. 자존감을 키우면 자기 생각에 대한 믿음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단, 본인에 대한 냉철한 자기 평가가 필요해요.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그에 기반을 두고 한 발 앞서 미래를 설계했으면 합니다."

이교범

전자공학과 교수. 1991년 아주대 제어계측공학과에 입학해 학사,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뒤 덴마크 올보르대학교 연구교수를 거쳐 2007년 전자공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2014년 대한전기학회 전기공학 분야 학술상을 받았고 저서로는 〈고급전력전자공학〉, 〈전동기 제어〉 등이 있다.

학문의 생활화
생활의 학문화

헤지펀드와 수학자의 역할

헤지펀드(Hedge fund)는 무엇이고 수학은 어떻게 쓰일까? 헤지펀드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개념이나 정의는 없고 제도, 규제 등과 관련된 공식 규정도 없다.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다양한 범위의 위험과 수익률을 목표로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하고 대체로 시장의 방향성과 관계없이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라고 정의하였다. 필자는 헤지펀드에 대한 수많은 정의 중 이에 가장 공감한다. 단순히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이란 생각은 편견이다. 그런데 이 정의의 의미를 자세히 뜯어보면 수익, 그것도 절대수익을 추구한다는 것 외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

헤지펀드의 유래

서양에서 부유한 귀족이 가문자산관리의 일환으로 유능한 자산관리인(fund manager)을 고용한 것이 헤지펀드의 모태라는 주장도 있고, 미국 대공황 이후인 1930년대에 수학적 예측모형이 개발되면서 출발했다는 연구들도 있다. 1931년 칼 카스튼(Karl Karsten)은 그의 저서 〈Scientific Forecastings〉에서 다양한 시계열자료의 통계학적 분석을 통하여 미래를 예측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의 시계열자료에는 주가, 이자율, 주식 거래량 등이 포함되었고 급기야 펀드를 만들어 연간 250%의 수익을 달성했다고 한다. 운용전략에 롱-숏(Equity Long-short) 방식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고평가된 주식을 팔고(short) 동시에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long) 투자방식이다. 통계적 재정거래 전략(statistical arbitrage strategy)을 고안한 것으로, 과학적 예측 연구의 부산물인 셈이다.

1949년에는 헤지펀드의 효시로 알려진 알프레드 윈슬러 존스(Alfred Winslow Jones)가 'A. W. Jones & Co.' 라는 펀드를 출시한다. 이는 칼 카스튼의 펀드보다 18년이나 지난 후의 일이고, 과학적 미래 예측에 대한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담고 있었다. 합자회사로 설립된 A. W. Jones & Co.는 투자전략과 시장예측 모형을 개선하고 기술적 분석방법을 탑재한다. 데이터 분석에 대한 수학적 접근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 펀드 운용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자회사 형태로[1] 구성하였다. 이렇게 얻은 자유로운 투자환경에서 도입된 공매도(short sale)와 차입거래(Leverage) 전략을 이용하여 존스는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극대화했다. 1950~60년대에 A. W. Jones & Co.는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특히 1955~1965년 10년간 기간수익률이 670%에 이르며 다른 헤지펀드들을 압도한다.

이 시기에 포트폴리오 이론(Portfolio Investment Theory)과 확률모형 이론(Probability)도 발전하는데, 현업(market)과 학계의 훌륭한 공조이자 수학이 산업에 활용된 좋은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아쉽게도 이 시기에 대해 남아 있는 자료가 많지 않지만, 1968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215개의 투자 합자회사가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워렌 버핏(Warren Buffett)의 'Buffett Partnership', 조지 소로스(George Soros)의 'Quantum Fund'와 같이 현존하는 전설적 헤지펀드들도 이 시기에 닻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헤지펀드 암흑기와 금융공학 출현

미국 주식시장은 1930년 대공황 때 폭락했지만, 2차 대전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 강한 대세 상승기를 맞게 된다. 이 시기 많은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리스크 헤지 비용이 발생하는 존스의 투자모형과 멀어져 매수 위주의 방향성 투자로 선회하였다. 방향성 투자 결정은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수학적인 고려사항이 대폭 줄어들 뿐만 아니라 상승장(bull market)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낸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되던 시기에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은 다가올 위기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이 방향성 투자는 1960년대 후반에 나타난 약세장에서 큰 손실을 보게 되었고, 존스의 교훈을 잊은 많은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시장에서 사라져갔다. 그리고 헤지펀드는 긴 암흑기를 맞게 되었다.

시장에는 돌파구가 필요했다. 미래 가격발견 기능, 리스크 헤지 수단, 그리고 거래 상대방 역할 등에 대한 금융시장의 니즈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해진다. 때마침 수학의 한 산물로 금융사에 찬란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옵션평가모형이 발표되었다[2]. 이어 공정가격(fair value)을 갖게 된 많은 파생금융상품이 속속 시장에 상장되었다. 이는 다양한 투자전략과 리스크 헤지 수단이 마련되는 등 금융시장의 복잡한 니즈를 충족하면서 금융공학(Financial Engineering)의 출현을 알리는 역사적 변곡점이 되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래서일까? 1980년에 들어서면서 매우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갖는 글로벌 매크로 전략이 등장하고, 1980년 로버트슨(Julian Robertson)에 의해 지금은 전설로 남아 있는 '타이거펀드(Tiger Fund)'가 출시된다. 이 펀드는 출시 후 6년 동안 시장수익률을 2.5배 상회하며 당시 헤지펀드 산업을 주도했다. 선물과 옵션 등의 존재로 시장상황의 변화에도 리스크 헤지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매니저들은 거시경제 분석에 역량을 집중하게 되는데, 이는 정상적인 시장을 전제로 한 것으로 데이터의 이상치(outlier)에 대한 대비는 미흡했다. 그러나 그들은 예상하지 못한 1987년 10월19일 '블랙 먼데이(Black Monday)'에 S&P500가 20.5% 폭락하는 참사를 겪으면서 끔찍한 대가를 지불했다. 출범 후 6년 동안 연평균 43%의 수익을 달성하며 S&P500 수익률(18.7%/년)을 크게 상회하던 타이거 펀드도 7억달러에서 3억달러로 가치가 추락하는 등 큰 타격을 입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데 만족해야 했으며, 수많은 펀드 매니저들은 짐을 싸야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블랙 먼데이 이후, 글로벌 매크로 전략을 사용하면서 이전의 큰 성공을 바탕으로 살아남은 몇몇 헤지펀드는 큰 기회를 맞는다. 타이거펀드, 퀀텀펀드, LTCM(Long Term Capital Market) 등은 다시 한번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1990년대 들어 막대한 이익을 실현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공격 일변도 전략을 신봉했던 것이다. 그러나 신흥시장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격동의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기세 등등하던 매크로 전략은 속속 무너져 내린다. 멕시코, 러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등에서 통화,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은 급락한다. 큰 타격을 입은 헤지펀드는 대량 매도포지션을 취하는 등 시장의 가격 결정자를 자처하는 탐욕스러운 투자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대량 매도포지션과 레버리지를 취함으로써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극대화하였고, 또 스스로 그 굴레에 빠져들고 만다. 그들의 마지막 저항은 필연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으며 그 충격 또한 매우 컸다. 혼란의 과정에서 퀀텀펀드는 20억달러의 손실과 함께 큰 곤혹을 치렀으며, LTCM(1998)과 Tiger Fund(2000)는 시장에서 퇴출되기에 이른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투자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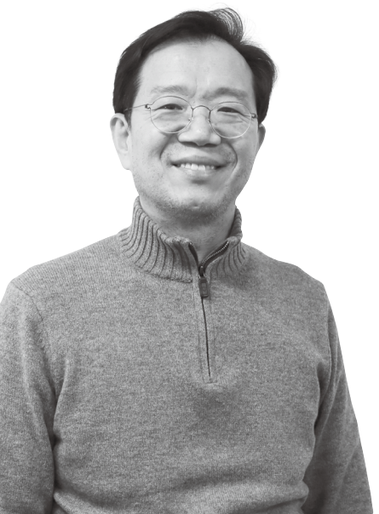
현존하는 헤지펀드의 전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Renaissance Technologies)'를 설립한 수학자이자 역사상 가장 성공한 헤지펀드 매니저 사이먼스(James H. Simons)는 한 인터뷰에서 '시장에서 가격은 항상 옳다고 하지만, 시장 가격에는 늘 이상현상이 있습니다'라고 함축적인 언급을 한 적이 있다[3]. 그는 거대한 자료를 축적하면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통해 가격의 추세와 패턴을 분석하는 모형을 개발했다. 그가 고용한 펀드 매니저는 월가의 금융전문가가 아닌 대학과 연구소의 수학자와 과학자들뿐이다. 그들은 데이터 축적에 큰 공을 들였으며 인공지능 기법으로 축적된 대량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기간, 구조, 형태 등을 제한하지 않은 채 학습하여 가격 추세를 추출하였다. 그의 펀드도 큰 손실을 입은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투자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수학에 기반한 모형이 주는 메시지에 항상 충실했다. 그 결과 사이먼스는 30여 년간 연평균 30% 이상의 놀라운 수익률을 거두며 투자모형과 전략의 우수함을 최근까지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자신을 세계 70대 부호에 올려놨으며, 통 큰 기부를 통해 만인의 존경을 받고 자신의 로망을 실현하고 있다.

우리의 헤지펀드 시장에 시사하는 바도 매우 크다. 최근 우리 금융시장을 둘러싼 내외 정세나 거시경제변수가 요동치면서 기존 관찰 범위나 통계적 분석 대상을 벗어난 새로운 데이터가 끊임없이 시장에 유입된다. 금융 자료는 물론 비금융 자료까지 포함된 빅데이터를 분석해내야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헤지펀드는 규제와 감독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점을 악용한 도덕적 해이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전설적인 헤지펀드들이 명멸을 거듭하듯이 우리 금융시장에서도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2011년 한국형 헤지펀드가 출범한 이래 2019년 순자산 30조원을 돌파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8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이미 세계 헤지펀드가 걸어온 기회와 위기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 헤지펀드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서는 냉철한 분석과 엄격한 투자원칙이 요구된다. 필자가 헤지펀드에 수학자의 많은 진출과 역할을 기대하는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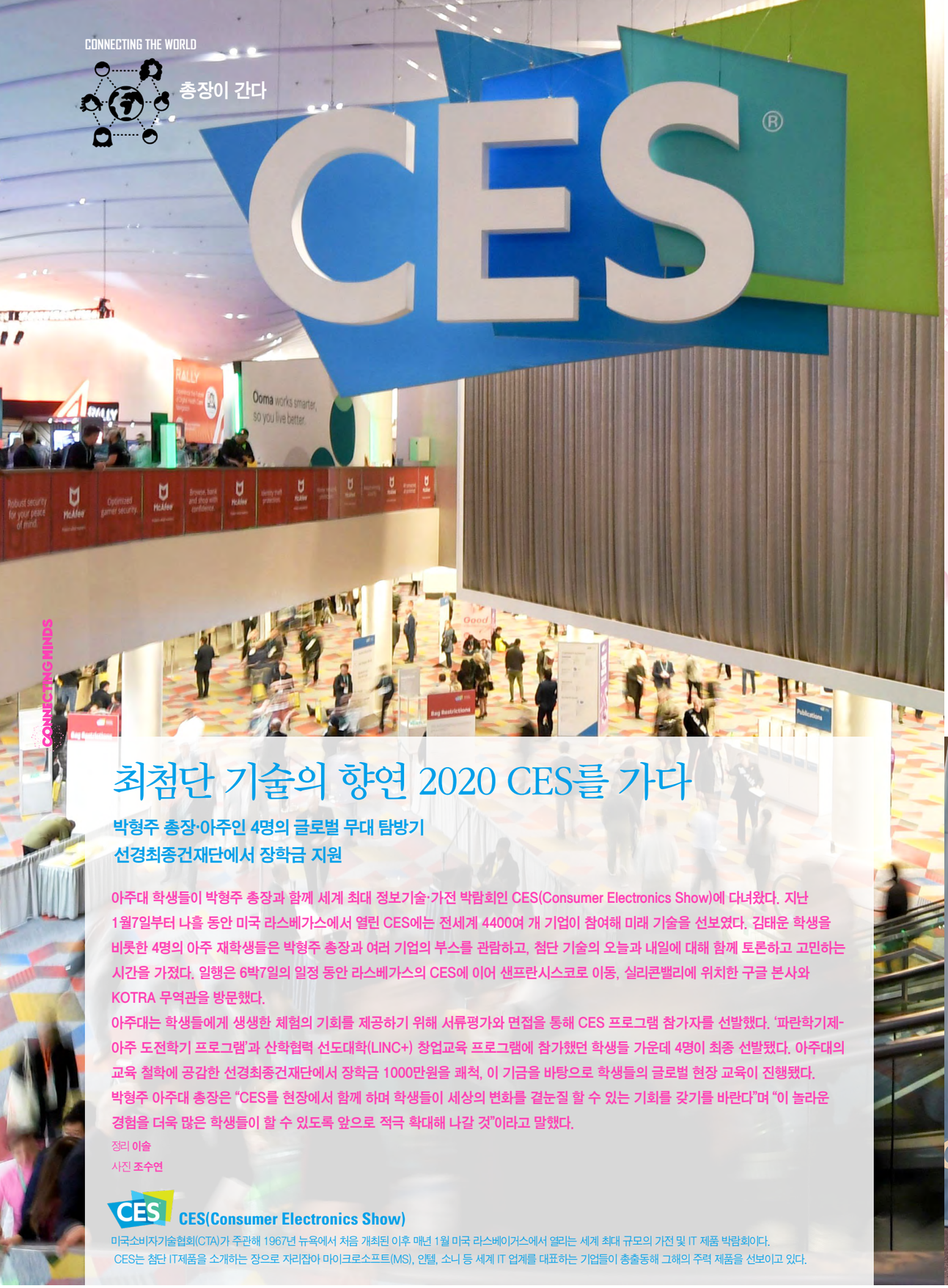
1) 헤지펀드는 일반적으로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 형태로 운용자(General partner)와 소수의 투자자(Limited partner)로 구성된다. 운용상 레버리지(leverage)와 공매(short sale)를 허용하는 등 운용의 자율을 높이고, 사모펀드인 만큼 규제와 감독은 최소화한다.

2) 효율적 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과 정상적인 시장상황을 전제한 투자이론은 시장론자들에 의해 항상 공격받아 왔다. 시장 메커니즘, 정보의 이상치(outlier), 그리고 비재무적 정보 등에 의해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

3) 1973년 각각 블랙&숄즈(F. Black & M. Scholes)와 머튼(R. Merton)이 개발되었고, 파생 금융상품 시장 개설의 계기가 되었다. 다양한 투기거래(speculation), 헤지거래(hedge), 차익거래(arbitrage), 그리고 레버리지거래(leverage) 등 새로운 투자의 지평을 열었다. 그 공로로 숄즈와 머튼이 1997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문남식
수학과 교수



최첨단 기술의 향연 2020 CES를 가다

박형주 총장·아주인 4명의 글로벌 무대 탐방기
선경최종건재단에서 장학금 지원

아주대 학생들이 박형주 총장과 함께 세계 최대 정보기술·가전 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 다녀왔다. 지난 1월7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에는 전세계 44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미래 기술을 선보였다. 김태운 학생을 비롯한 4명의 아주 재학생들은 박형주 총장과 여러 기업의 부스를 관람하고, 첨단 기술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행은 6박7일의 일정 동안 라스베가스의 CES에 이어 샌프란시스코로 이동,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구글 본사와 KOTRA 무역관을 방문했다.

아주대는 학생들에게 생생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류평가와 면접을 통해 CES 프로그램 참가자를 선발했다. '파란학기제-아주 도전학기 프로그램'과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학생들 가운데 4명이 최종 선발됐다. 아주대의 교육 철학에 공감한 선경최종건재단에서 장학금 1000만원을 쾌척, 이 기금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글로벌 현장 교육이 진행됐다.

박형주 아주대 총장은 "CES를 현장에서 함께 하며 학생들이 세상의 변화를 걸눈질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며 "이 놀라운 경험을 더욱 많은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 **이솔**
사진 **조수연**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해 1967년 뉴욕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및 IT 제품 박람회이다.
CES는 첨단 IT제품을 소개하는 장으로 자리잡아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 소니 등 세계 IT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총출동해 그해의 주력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2020 CES 관람기

"더 크고 넓은 세상을 향해 눈을 뜨다"

CES 현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하고 멋졌다. 첫날 나는 '스마트홈'에 대한 여러 기술을 관람했다. 전자제품의 무선화(wireless)를 추구하는 기술, 예상 설계를 3D로 표현해 주는 제품, 집안의 온습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제품 등이 흥미로웠다. 두 번째 날에는 삼성, 엘지, 소니 등 유명 기업들의 전시를 보았다. 로봇청소기 작동이나 커텐 걷기 등 집안일을 보살펴주는 로봇, 돌돌 말 수 있는 롤러블 TV를 보면서 꿈꾸던 것들이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실감했다. KOTRA와 구글을 방문해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내가 지금까지 너무 작은 세상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닌가하는 아쉬움을 느꼈다. 미국에서의 여정 전반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계획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오늘 현재보다 내일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동기 부여도 확실히 되었다.

양보경 건축 15

"꿈꾸던 것들이 미래 내 모습 되도록"

약물 전달과 관련된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있는 터라 헬스케어와 웰니스 관련 부스를 주로 관람했다. ▲스마트 ▲사물인터넷(IoT)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성이 가장 눈에 띄는 테마였고, 전문 의료기기 보다는 일상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발전시킨 것들이 많았다. 양치질 후 치아에 남아 있는 플라그를 감지,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칫솔질을 교정해 주는 스마트 칫솔과, 탈모증상 완화를 위해 머리를 빗을 때 얇아진 모발의 회복을 촉진(레이저 테라피)한다는 스마트 브러시가 눈에 띄었다. 몸의 관절을 인식하여, 정확한 자세로 홈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도 기억에 남는다. 볼거리가 많아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바삐 다녔지만 미처 보지 못한 것이 많아 아쉬울 따름이다. 실리콘밸리에서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실무와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CES에서 전시된 기술과 제품은 2~3년 안에 출시되고 상용화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이 생겼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을 얻었다. 바로 먼 길을 여행할 때 짐을 잘 챙기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 비행을 하고 미국에 도착, 숙소까지 이동하는 동안 가방을 잃어 버리고 말았다. 여권과 지갑은 다행히 없어지지 않았지만 CES 등록증을 되찾지 못했고, CES 출입을 위해 다시 비용을 내고 재발급을 받아야 했다. 총장님을 만나 사정을 말씀드렸는데, "지갑과 여권을 잃어 버리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위로해 주시며 출입증을 재발급해 주셔서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 수 있었다. 총장님과 일행들에게 감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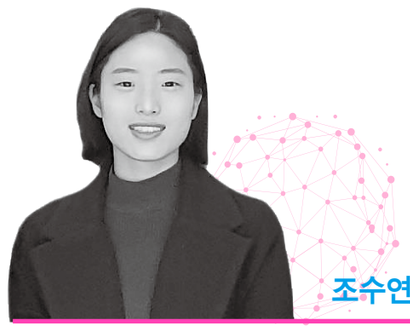
오경진 응용화학생명공학 13

"가장 뜨거웠던 일주일"

이번 CES에서의 경험은 세상을 보는 내 시야를 넓게 만들어 주었고, 더 큰 틀에서의 세상의 변화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다양한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기술은 한마디로 압도적이었고 세계는 매 순간 발전하고 있다는 면에서 나를 자극시켰다. ▲20분의 빛으로 커피 한 잔의 효과를 보여 주는 디지털 카페인 제품 ▲전 세계 어디서든 카드 없이도 현금을 ATM에서 뽑을 수 있는 시스템 ▲LG의 폴더블 TV 등을 목격하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생각을 확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다. 무엇보다 스타트업들이 내놓은 기술을 보며 일상생활에서 우리도 충분히 생각해 낼 수 있는 바가 도전적인 마인드에 기반을 둔 창의력과 실행력을 통해 구현됨을 알 수 있었다.

김태운 미디어 16

"내 전공과 관심사에 새 동력"



인문대 학생으로서, CES 탐방 프로그램 지원을 망설이기도 했다. 하지만 문화콘텐츠와 테크놀로지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기술과 콘텐츠, 기술과 라이프스타일 등에 대해 고민해 볼 여지가 많다는 생각에 지원을 결심했다. 기술 트렌드를 앞서 파악한다면 내 전공과 관심사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며, 그 발판으로 CES 탐방은 더 없이 좋은 기회였다.

CES에서의 설렘과 놀라움도 대단했지만 KOTRA와 구글을 방문하면서 만난 이들과 들은 이야기들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KOTRA 센터장께서 하신 "CES가 4일 간의 격전이라면 실리콘밸리는 365일이 그런 식"이라는 말씀, 구글 본사에 만난 젊은 직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게 되었다. 구글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특히 구글의 투명하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실감할 수 있었다. 바쁜 일정에도 이동하는 틈틈이 총장님과 여러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고 각기 다른 전공의 참가자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한층 성장하는 시간이 된 것 같다.

조수연 문화콘텐츠 17

전공소개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간호학과

인간의 진정한 용기와 삶의 경외를 배웁니다

'간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호학은 공부하기가 어렵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간호사라는 직업은 매우 힘들다는데 어떤가요?'

처음 간호대학에 원서를 쓰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간호사에게 주로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저도 간호사 시절과 교수인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받아 본 질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간호학 공부가 어렵고, 간호사는 힘든 직업이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기 어렵다는 말이 맞는 부분은 먼저 인간을 신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구조와 생리를 모두 이해하고 기억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생리학, 해부학, 병리학, 약리학, 분야별 간호학 등 참으로 많은 양의 공부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간호사라는 직업이 힘들다는 면에서는 신규 간호사 첫날부터 당장에 숨이 찬 환자에게 재빠르게 산소를 공급할 줄 알아야 하고, 실낱같은 혈관을 놓치지 않고 주사를 놓아야 하는 일들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업무가 서투른 간호사들은 허둥지둥 뛰어다니고, 종일토록 동동거려야 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경력이 많고 노련한 간호사라 할지라도 갑자기 들이닥치는 응급환자나 중증환자 앞에서는 누구나 숨쉴 틈 없이 바빠지게 마련이지요. 또한 남들이 다 쉬거나 잠을 자는 야간 시간에 긴장하며 환자를 돌보는 일 자체도 큰 신체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물론 간호학을 배우는 데, 간호사로 일하는 데 힘이 드는 부분도 있지만, 간호사로 일하면서 내가 선택하길 잘했구나 하는 의미 있고 보람찬 일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절박한 눈빛을 보내는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어느덧 고른 숨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노라면 저절로 안도의 미소가 떠오릅니다. 또 셀 수 없이 많은 주사줄과 장치들을 달고 있는 환자가 하루 다르게 얼굴에 화색이 돌고, 마침내 줄을 다 걷어내어 말끔히 침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마치 내 자식(?)이 살아 돌아온 듯한 보람이 느껴지지요. 이런 기대되는 미래가 있기에 오늘은 비록 온 몸을 붕대로 칭칭 감아 맨 환자들이지만 곧 좋아질 것이라는 위로와 함께 성심껏 돌보게 되는 직업이 간호사입니다. 이런 보람은 해가 갈수록, 연륜과 경험이 쌓일수록 더욱 의미가 더해져서 내 인생의 자양분이자 삶의 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병원에 가면 그렇게 힘들다는 간호사라는 직업을 아주 오래하고 있는 나이 드신 간호사들을 봅니다. 간호사란 직업이 단순히 고되고 힘들다고만 한다면 그리 오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간호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때문에 다년간의 훈련과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자세를 필요로 합니다. 실제 간호사로 일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내 환자에게 더욱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아쉬움과 함께 공부에 대한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환자들이 자신이 왜 병에 걸려야 했는지 이유도 모르지만 절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질병을 이겨내는 과정을 보며 인간의 진정한 용기와

유문숙
간호학과 교수

앞으로도 우수한 교수진과 학생, 아주대병원이라는 좋은 실습지와 졸업 후 일터가 보장된 환경 속에서 더욱 발전하게 될 대학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선 이들과 함께 울고 웃어가며 삶의 벅찬 감동을 느끼고자 하는 분들에게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을 적극 추천합니다.

삶의 경외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더욱 나 자신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더욱 강해질 수 있는 직업, 이것이 간호사입니다. 그러니 인간 사랑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씩씩하게 용기를 가지고 간호사라는 직업에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은 1998년에 설립되어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짧은 역사이기는 하나 그동안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언론기관의 대학평가에서 2014년 전국 4위, 2018년 전국 2위로 랭크되는 등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간호대학 단독 건물도 지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교수진과 학생, 아주대병원이라는 좋은 실습지와 졸업 후 일터가 보장된 환경 속에서 더욱 발전하게 될 대학입니다.

그러니 내 손길을 통해 고통 속의 인간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선 이들과 함께 울고 웃어가며 삶의 벅찬 감동을 느끼고자 하는 분들의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입성을 적극 환영합니다.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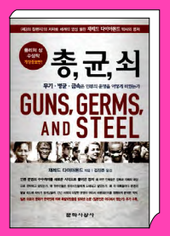
2018년 9월 준공된 간호대학 건물 홍재관 전경.
1998년 첫 신입생을 받은 아주대 간호대학은
지난 2018년 설립 20주년을 맞이했다

진정한 간호사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유문숙 간호학과 교수의 추천서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

김현아 저, 2018, 쌤엔파커스

"네가 바로 저승사자와 싸우는 아이로구나" 중환자실에 누워 있던 할머니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간호사를 바라보며 한 말로 신문에 실려 유명해졌습니다. 저자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저승사자가 오더라도 내가 환자를 지키겠노라'고 해서 신문 1면에 나왔던 21년 경력의 간호사. 부제로 달린 '단 한 번의 실수도 허락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라는 문장이 저자의 절절한 외침으로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어떤 인간이 매 순간 완벽하게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병원이라는 현장, 사람의 생사가 오가는 현장에서는 무조건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못한 간호사들은 자신들을 꾸짖으며, 충분한 간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게 대해 울분을 토하기도 합니다. 보람되고, 가치 있는 직업이란 무게 아래 현장의 애환과 진솔한 간호사들의 이야기가 책 가득히 들어 있으니 간호와 병원 현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총, 균, 쇠

제러드 다이아몬드 저, 2005, 문학사상

인류 역사가 형성되는 과정의 결정적 기회는 무엇인지, 힘의 불균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방대한 고찰을 다룹니다. 이 책은 역사적으로 앞선 민족과 그렇지 못한 민족과의 차이는 관습도, 인종적 차이도 아닌 환경, 그 중에서도 특히 총기와 병균과 금속의 발명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무기임을 설명합니다. 저자는 아직도 몇몇 국가들이 여전히 이런 세력으로 다른 민족들을 희생시키며 자신들의 터전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책을 통해 인류의 변천사와 함께 미래를 조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간호대 학생들은 '균' 파트를 꼼꼼히 읽노라면 질병의 역사를 통해 인류 역사가 바뀌게 되는 시대적 사건들과 질병의 무기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할일을 할 뿐'
교직원마이크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임을 알기에

본인을 소개해 주세요

교무팀에서 학사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박지원입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졸업생이기도 하고요. 1998년 아주대에 입학한 이래, 잠시 회사에 다닌 기간을 제외하고는 아주대와 쭉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교무팀에서는?

"방학하면 좋지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대학에서 일하며 한 해를 여유있게 마무리한 기억이 많지 않네요. 새해에도 학사 일정이 계속되기 때문이겠지요. 3월부터 새로운 학년도가 시작하기에, 직원들에게는 겨울방학인 1월과 2월이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교무팀에서는 담당 업무와 함께 졸업식과 입학식을 준비합니다. 매년 크게 다르지 않은 행사지만, 학생 개개인에게는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임을 알기에 교무팀 직원들은 성적 마감, 졸업 사정, 다음 학기 학적 변동, 수강신청 등을 진행하는 동시에 시간을 쪼개어 행사도 준비합니다. 올해에는 예기치 못한 감염병으로 인해 입학식과 졸업식이 취소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번 8월 학위수여일에는 학위 가운을 배부하고 포토존도 운영할 예정이므로 이때 되도록 많은 2월 졸업생들이 교정을 찾아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주 학생들에게

졸업식 날 이미 진로가 결정된 학생들은 환한 표정으로 인사를 옵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이 졸업 전에 미래를 보장받는 건 아닌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어디에서든 곧 자신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배움을 주신 교수님, 기억에 남는 직원 선생님, 힘이 되어준 학과나 동아리 선후배에게 인사를 건네 보세요. 모두가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 나아가 불안과 고민까지도 함께 나누기를 바라고 있을 거에요.

못다한 말

학생들이 보기에 저 역시도 이미 기성세대여서, 생각을 공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대학의 많은 구성원들이 기업이 아니라 학교를 직장으로 택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가치와 사명에 공감하고, 그 길에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겠지요. 아주대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께 밝게 인사말 한마디 건네면 어떨까요? A

박지원 교무팀 계장

RESEARCH NEWS >>>

* 사진의 일부는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콜로이드 광결정 박막 이용 실시간 미세압력 센서 개발

심태섭 교수
화학공학과·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심태섭 교수 연구팀이 콜로이드 광결정 박막을 이용한 실시간 미세압력 센서를 개발했다. 심태섭 교수(화학공학과·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의 새 연구 성과는 미세유체공학 분야 저명학술지인 〈랩온어칩(Lab on a Chip)〉 2019년 11월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논문 제목은 '콜로이드 광결정 박막을 이용한 미세유체 장치용 실시간 압력 모니터링 시스템 (Real-time pressure monitoring system for microfluidic devices using deformable colloidal crystal membrane)'이다. 이번 연구에서 심태섭 교수 연구팀의 최장한 학생(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은 미세압력 변화에 변형되어 광신호 변화를 야기하는 박막 콜로이드 광결정 멤브레인을 미세유체 소자에 결합하고, 소자 내에 가해지는 0.01 psi 수준의 미세한 압력변화를 감지함으로써 내부압력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함을 입증했다.

심태섭 교수는 "전기에너지를 전혀 소모하지 않으면서 국부적인 미세압력 변화를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인 결과"라며 "미세한 수력학적 거동 및 화학반응뿐만 아니라 몸 안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생체신호 변화 등의 모니터링을 위한 소재로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내 스마트팜용 태양전지 핵심기술 개발

김종현 교수
응용화학생명공학과·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

김종현 교수(응용화학생명공학과·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 연구팀이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광흡수 소재를 이용하여 실내조명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태양전지 개발에 성공했다. 전자부품 연구원의 박노창 박사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UNSW)의 윤재성 박사팀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연구 성과를 담은 논문은 나노소재 및 에너지 분야의 저명 학술지인 〈나노 에너지(Nano Energy)〉 11월23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 이번 연구 논문의 교신저자는 김종현 아주대 교수가 맡았다. 대학원 안명현 학생과 전자부품연구원의 김진철 박사는 공동1저자로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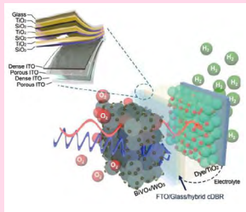
논문 제목은 '실내 저조도 조명환경에서 고출력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작을 위한 소자설계 전략과 구동원리(Device Design Rules and Operation Principles of High-Power Perovskite Solar Cells for Indoor Applications)'이다.

김종현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실내 조명에 최적화된 고출력 태양 전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며 "관련 기술을 국내 및 호주 스마트팜에 적용하여 농작물 생육환경 센서, 가축 헬스케어 센서 및 환경 모니터링 센서로 실증하는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 이용 친환경 수소 생산 기술 개발

서형탁 교수
신소재공학과·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아주대 서형탁(신소재공학과·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교수팀이 물 분해 수소 생산 효율과 내구성이 크게 향상된 실리콘 기반의 태양광 전기화학 광음극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관련된 내용은 화공 촉매 분야의 저명 국제 학술지인 〈어플라이드 카탈리시스 B: 인바이런멘탈(Applied Catalysis B: Environmental)〉 12월24일자 온라인 최신호에 소개됐다. 실리콘은 이미 태양 전지에 널리 활용되는 소재이지만, 물 분해와 같은 전해질 수용액 환경에서는 효율이 떨어지고 쉽게 부식되어 사용이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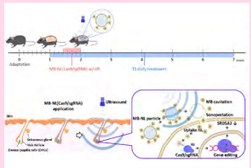


서 교수는 "최근 전기나 태양광을 활용하는 광·전기 화학적 물 분해 기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기존 화석 연료 개질 방식에 비해 생산 효율이 매우 낮다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저가이며 범용 소재인 실리콘과 몰리브덴 산화물 박막 적층 구조를 광음극으로 적용해 표면에서 수소를 직접 생산해내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앞으로 태양광 에너지만을 이용한 자가 전력 물분해 수소 생산의 실용화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호르몬성 탈모 치료용 유전자 편집기술 개발

윤태종 교수
약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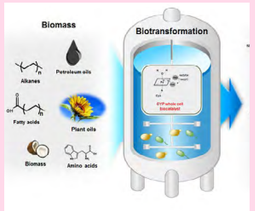
윤태종 교수 연구팀이 호르몬성 탈모 치료를 위한 나노 기술 접목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개발했다. 이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탈모 치료 약물의 개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태종 약학과 교수는 초음파에 반응하는 나노 입자를 이용한 유전자 편집 소재 전달 기술을 통해 호르몬성 탈모 치료에 탁월한 치료 효과를 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저명 학술지 〈바이오머티리얼즈(Biomaterials)〉 12월28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CRISPR/Cas9 단백질 구조체 전달용 초음파 활성 나노 입자를 이용한 호르몬성 탈모 치료제(Ultrasound-activated particles as CRISPR/Cas9 delivery system for androgenic alopecia therapy)'이다. 윤태종 교수는 "나노 기술의 유전자 가위 기술 접목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능은 극대화할 수 있어, 유전자 가위 기술이 가지는 무한한 가능성을 활용할 경우 기존 약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난치·불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효소 기반 친환경 바이오 기술 개발

최권영 교수
환경안전공학과



최권영 교수(환경안전공학과) 연구팀은 시토크롬 P450(CYP)이라는 특정 효소에 대한 친환경 바이오 및 염료 생산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관련 연구는 'Cytochrome P450 수산화 효소를 이용한 지속 가능한 바이오 자원의 생촉매 전환 기술(Whole-cell biocatalysis using cytochrome P450 monooxygenases for biotransformation of sustainable bioresources(fatty acids, fatty alkanes, and aromatic amino acids))'이라는 논문으로 1월8일자 〈바이오 테크놀로지 어드밴스드(Biotechnology Advances)〉에 게재됐다. 이번 논문에서 연구팀은 CYP 효소를 이용, 다양한 바이오 매스 자원을 활용하여 현재 상용화된 고분자 단량체를 친환경 공정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과정에서 CYP 효소를 생촉매로 활용할 경우 효소 공학 및 대사 공학을 이용한 다양한 공학적 엔지니어링을 통해 산업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공정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NEWS >>>

파란학기제 도전 마무리, 성과발표회 개최

2019년 2학기 파란학기제를 마무리하는 성과발표회가 지난해 12월4일 오후 연암관 로비에서 개최됐다. 아주대가 2016년 처음 시작한 '파란학기제 - 아주 도전학기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스스로 도전과제를 설계해 학점을 받는 자기주도형 학습 프로그램이다.

파란학기제 성과발표회는 성과물 전시 및 소개, 시상, 참가자 교류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2019년 2학기 파란학기에 참여한 학생들뿐 아니라 지도 교수와 동료 학생들, 교직원과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축하하고 격려했다.

2019년 2학기 파란학기제에 참여한 학생들은 총 16개팀, 69명이다. 학생들은 ▲창작 동화 제작 및 출판 ▲VR 게임 제작 ▲가구 제작과 같은 독창적인 창작 활동뿐 아니라 '파란학기-Extreme'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주제의 활동을 진행했다.

▲시각 장애인의 버스 이용 불편 해결을 위한 솔루션 개발 ▲까마귀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전선 보호물 제작 ▲소방대원 고충 체험 및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시리어스 게임 개발 ▲인근 상권을 살리기 위한 시장 분석 ▲아주대 축구부가 대학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조사 등의 주제가 2019년 2학기 파란학기제에 포함됐다.

박형주 총장과 강경란 대학교육혁신원장, 김병주 경영학과 교수와 기업체 관계자들이 함께한 시상식에서는 아몬 팀(지도 오규환 미디어학과 교수)이 훌륭한 뱃사공상을 받았다. 이 상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낸 팀에게 주어진다.

아몬은 공병국 학생을 비롯해 미디어학과 재학생 10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시리어스 게임 제작 및 후원품 생산 유도〉 과제를 수행했다. 이 팀은 소방대원들의 고충을 체험하고 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게임 개발에 도전했다.

박형주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파란학기를 수행하며 부쩍 성장했다는 우리 학생들의 소감을 듣고 매우 감동을 받았다"며 "사회문제 해결형 '파란학기-Extreme'을 도입하는 등 진화하고 있는 파란학기에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아주대는 학생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 도전하고 이를 통해 인생과 진로에 대한 깨달음과 자신감을 얻도록 돕기 위해 파란학기제를 시작했다. 학생들은 스스로 설계한 프로그램으로 파란학기제에 참여하며 이를 성실히 잘 수행한 경우 3~18학점의 정규 학점을 받게 된다.

학생들은 인문, 문화·예술, 봉사, 국제화, 산학협력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제한 없이 도전 과제를 설계할 수 있고 학교나 교수가 제안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거나 이를 수정해 신청할 수도 있다. 2016년 1학기부터 지난해까지 총 8학기 동안 총 775명의 학생들이 파란학기제에 참여했다.

아주대는 앞으로 '파란학기-Extreme'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을 더욱 장려·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파란학기제를 운영 중인 아주대 대학교육혁신원은 2019년 2학기 파란학기제 성과발표회의 일환으로 타 대학 관계자들을 위해 '파란학기제 설명회'를 마련했다. 진로 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인 교육부 '대학 진로탐색 학점제 지원사업'의 출범을 앞두고 아주대 파란학기 프로그램의 경험과 사례를 널리 공유하기 위해서다.

2019-2 파란학기제 수상팀

- **훌륭한 뱃사공상** - 아몬
- **황금실패상** - 가치타다
- **Zero to One상** - 원천동스튜디오
- **내일의 주인공상** - 파원
- **시선집중상** - 엣지
- **터닝포인트상** - 오레카, 멀티탭
- **파일럿상** - E:dge, 일가견, 골목상권
- **이노베이터상** - 센터서클, 파란가구, 난이, 정서유치원, ViveReal

취·창업 진로 지도 우수 대학, 외부 평가서 선전

아주대가 뛰어난 진로 지도 및 취·창업 지원 역량을 인정받아 관련 평가에서 잇따라 좋은 성적을 거뒀다.

동아일보사는 지난해 12월10일 '2019 청년드림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아주대는 최우수 대학 그룹에 포함됐다. 청년드림대학은 대학이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하는가와 진로지도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전국 4년제 대학 224개의 대학 알리미 공시 정보를 통해 46곳의 대학이 '청년드림대학'에 포함됐고 아주대는 그중 최상위인 최우수 그룹에 이름을 올렸다. 동아일보는 취업과 창업, 진로지도 시스템과 관련한 인프라와 교육, 서비스와 네트워크 영역을 분야별로 평가하고 취업률과 유지취업률을 교차 분석해 최우수·우수 대학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된 한국경제신문사의 '대학 취업·창업 평가'에서도 아주대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 4년제 대학 161곳과 전문대학 1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평가에서 아주대는 종합 순위 6위에 올랐다. 2018년에 비해 6계단 뛰어오른 성과다. 한경 '대학 취업·창업 평가'는 ▲취업률 ▲유지취업률 ▲창업 학생 수 ▲현장실습 참여 학생 비율 ▲학생당 창업지원액 ▲학생당 창업 공간 규모 ▲비교과 창업활동 참여 학생 비율 ▲창업 강좌 이수학생 비율 총 8개 지표로 평가했다. 아주대는 특히 현장실습 참여 학생 비율이 높았다.

아주대는 저학년 대상 적성·직업 탐구 프로그램과 고학년 대상 취·창업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취업뿐 아니라 창업과 관련해서도 〈기술창업과 경영〉을 비롯한 정규 교과목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창업 동아리 지원 ▲창업 준비 지원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3~4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시 운영된다. 한해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500여 개 기업에서 현장을 경험하고 있다.

PEOPLE

2019 취업률 발표, 졸업생 취업률 72%로 우수

교육부가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한 '2018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아주대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71.6%를 기록해 전년 대비 3.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인 유지 취업률 또한 88.9%를 기록해 전년 대비 0.4% 상승했다. 아주대가 기록한 취업률과 유지 취업률은 모두 졸업생 2000명 이상 규모의 4년제 대학 58곳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4년제 일반 대학들의 평균 취업률은 64.2%로 집계됐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기준 상위 30개 대학의 평균 취업률은 66.0%로, 아주대 취업률 71.6%에 비해 5.6%포인트 밑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주대는 지난 2015년 10월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시범대학에 선정되어 체계적인 진로·취업 지도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전문 상담사와 함께 하는 1:1 상담 서비스 ▲업종별 직무별 선배들을 초청하는 유쾌한 취업 간담회 ▲학생들이 직접 중견 기업을 발굴해 발표하는 아주히든챔피언 학생 발굴단이 대표 프로그램이다.

졸업자와 졸업을 연기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맞춤형 프로그램 네오챌린지를 마련,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네오챌린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역량 진단-특강-개별 컨설팅으로 이어지는 집중 케어를 받는다. 아주대 대학일자리센터는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 청년들에게도 진로 및 취업 상담 프로그램을 개방, 지역 사회 청년들을 위한 거점대학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통계는 대학 알리미를 통해 공시된 2018년 말 기준의 데이터로 2017년 8월, 2018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최종 유지 취업률은 기준 월 직장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대졸자 취업 여부를 확인한 이후, 1년 간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계속 유지되는지 알아보는 방식으로 집계한다.

EVENT

산학협력 성과 공유 축제 '아주 밸리 페스타'

아주대가 산학협력 성과 공유와 확산을 위한 축제 '2019 AJOU Valley Festa'를 개최했다. 행사는 지난해 12월10일부터 16일까지 연암관과 수원시 영통구 소재 디지털엠파이어Ⅱ에서 진행됐다.

'AJOU Valley'는 대학과 지역, 기업의 경계를 허물고 연결하여 더 넓은 세상에서의 경험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대학교의 글로컬 산학협력 혁신 생태계를 뜻한다.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고 아주대 LINC+사업단·대학교육혁신원이 주최하며 디지털엠파이어Ⅱ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산학협력 성과(LINC+, BRIDGE+, 대학혁신지원사업) 전시, Connecting Star 성과발표회, 드론체험 교실, 기업 SOS 지원 상담회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행사 둘째 날인 11일에는 2019년 활발한 산학협력 활동을 보인 기관과 기업, 교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2019 AJOU Connecting Star Awards'와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창업 분야에서 우수한 활동을 보인 학생들에 대한 부문별 시상이 진행되어 그간의 성과를 격려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아주대의 SOS 지역협업센터(RCC)인 디지털엠파이어Ⅱ(수원시 영통구 소재)에서도 개최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 의미를 더했다.

그밖에도 디지털엠파이어Ⅱ 임직원 자녀 대상의 '아주대와 함께하는 글로벌 꿈나무 창의과학 드론교실'이 마련됐고, 산학협력 성과 전시와 함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회(법무, 정책, 특허, 현장실습, 기업지원) 및 정책자금 ABC 세미나가 열렸다.

박형주 총장은 "교육과 연구에 이어 '산학협력' 또한 대학의 중요한 역할로 꼽히고 있다"며 "아주대는 대학과 기업, 지역사회가 경계 없이 연결되는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친화 교육, 기술사업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도출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임재성 LINC+사업단장은 "아주대학교는 LINC사업에 이어 LINC+사업을 진행하며 축적된 산학협력 고도화형 지식과 노하우로 산학협력 혁신 생태계 'AJOU Valley'를 조성하고 있다"며 "지역협업센터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지역혁신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PEOPLE

의대, 2년 연속 의사 국가시험 100% 합격

제84회 의사 국가시험에서 아주대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38명(의과대학 37명, 의학전문대학원 1명)이 전원 합격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한 실기시험과 올해 1월7~8일 양일간 시행한 필기시험을 종합해 1월2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오영택 의과대학장은 "그동안 내실 있는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임상·연구 현장에 지원을 강화한 결과"라며 "그동안 밤낮으로 노력한 학생들과 항상 열성으로 학생을 지도해 주신 의과대학 교수님들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은 1988년 개교하여 지난 2018년 30주년을 맞았으며 학년 당 학생 정원이 40명, 교원수는 450여 명으로 1:1 교육이 가능할 정도의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PEOPLE

간호대학, 간호사 국가시험 전원 합격

아주대 간호대학 학생 74명이 제60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전원합격했다. 간호사 국가시험은 지난 1월22일 치러졌다.

송미숙 간호대학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가시험에서 학생 전원이 합격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융합형 간호인재 육성의 산실이 되도록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주대 간호대학은 1998년 3월 제1회 신입생이 입학한 이후 전공 교과목 외에 의료현장 적응실습,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선택실습, 실무역량강화를 위한 전임교수 실습 책임제, 졸업논문 제도, 담임반 제도 및 멘토링 제도 등을 통해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의료 현장에서 전문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간호대학은 2002년 첫 졸업생 배출 이후 단 1회만 빼고 학생 전원이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쾌거를 만들어왔다.

NEWS >>>

AWARD & SELECTION

2개 과목 연계해 더 깊은 공부, 강의 페어링 공모전 시상식

'제10회 강의 페어링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해 12월12일 성호관에서 열렸다. '강의 페어링'이란 학생이 2개 이상의 강의를 연계하여 스스로 설계한 과제를 해결하는 융복합 교육 모델이다. 강의 페어링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수강하는 과목을 새롭게 창조, 더욱 깊고 다양하게 공부하고 있다.

다산융복합센터는 2019년 강의 페어링에 참여한 학생들 32명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했다. 앞서 12월5일 성호관 로비에서 열린 공모전에는 22개의 작품이 출품됐다. 학생 300명이 직접 참여한 현장 투표와 다산학부대학 소속 교수진의 평가를 종합해 우수상 4명, 입상 7명을 뽑았다. 작품을 출품한 학생들은 공모전에 직접 자리해 질의 응답도 진행했다. 강의 페어링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도전이자 자발적 융합 활동이다. 아주대는 올해 초 중장기 발전계획 〈아주비전 4.0〉을 통해 자기주도형 하이 인터랙티브(Hi-interactive) 교육 혁신을 실현해 가겠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공모전 우수상을 수상한 인예린(심리학과) 학생은 교양과목 〈프랑스의 문화와 예술〉과 심리학 전공과목 〈인지행동치료 입문〉을 강의 페어링 하여 '중세 바로크,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기'라는 결과물을 선보였다.

문화콘텐츠학과에 재학 중인 FENG XU 학생은 〈영어데이터 분석기초〉와 〈스토리텔링의 이해〉 과목을 융합하여 '중국영화 키워드로 본 중국 재혼 가정 부모와 자녀들의 심리'라는 결과물을 도출해 냈다.

EVENT

'AI·Data Science' 국제 공동학술회의 개최

아주대가 AI와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 국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다. '2019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AI & Data Science: Mathematics and Applications 국제공동학술회의'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아주대 7대 인공지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아주대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과가 인공지능 및 데이터사이언스 분야에서 훌륭한 연구를 수행 중인 외국 5개 대학과 연계해 열었다.

학회에는 싱가포르 난양이공대학(NTU)과 미국 버펄로대학교(SUNY Buffalo), 일본 큐슈대학교(Kyushu University), 중국 산동대학교(Shanding University) 및 중국 해양대학교(Ocean university of China)를 비롯해 KAIST, 서울대 등 국내 대학과 인공지능·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기업체의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EVENT

인문대학, '제13회 전국 고등학생 프랑스어 대회' 개최

인문대학이 지난해 11월9일 다산관에서 '제13회 전국 고등학생 프랑스어 대회'를 개최했다.

주한 프랑스대사관과 앙리앙스프랑세즈, 한국프랑스어교사협회가 후원, '한국 속의 프랑스'라는 주제의 동영상 공모전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회 예선에는 34개 팀, 본선에는 20팀의 고등학생들이 참여했다. 대회에서는 본선 진출작 상영과 시상식이 진행됐다. 본선 진출 팀에게는 모두 우수상이 주어졌고, 현장에서 본선 심사위원의 평가와 관객 투표를 통해 심사위원 특별상과 관객상이 수여됐다.

조광국 인문대학장은 "같은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끼리 모여 교류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며 "이번 대회가 프랑스어를 배우는 고등학생들에게 각별한 의미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학장은 "참신하고 톡톡 튀는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아 기대가 컸다"며 "참가자 모두가 아주대에서 값진 경험을 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AWARD & SELECTION

이재현 교수, '제11기 포스코사이언스펠로'

이재현 교수(신소재공학과)가 포스코청암재단의 '제11기 포스코사이언스펠로' 40인에 선정됐다. 이 교수는 재단으로부터 2년간 1억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포스코청암재단은 지난해 10월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제11기 포스코사이언스펠로'에 선발된 국내 과학자 40명에게 연구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사이언스 펠로십은 국내에서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자긍심과 안정감을 갖고 연구에 전념해 장차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스코청암재단의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신 성장동력 기반이 되는 응용과학 분야(금속, 신소재, 에너지소재)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고 아주대 이재현 교수가 이 부문에서 선정됐다.

지난해로 11년째를 맞은 포스코사이언스펠로십은 현재까지 수학 75명, 물리학 81명, 화학 81명, 생명과학 93명, 금속 6명, 신소재 6명, 에너지소재 5명에게 연구 지원금 203억원을 전달했다. 과정별로는 박사과정 91명, 포스트닥 66명, 신진교수 190명 총 347명이 선발됐다.

AWARD & SELECTION

조성을 교수, '제18회 다산학술문화재단' 학술대상

조성을 교수(사학과)가 '제18회 다산학술문화재단' 학술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해 11월22일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클럽에서 열렸다. 조성을 교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고 다산 실학사상이 창조적으로 계승되는데 공헌, 이번에 학술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조 교수는 다산 선생의 활동과 기록을 종합 정리한 〈연보로 본 다산 정약용〉을 펴내는 등 다산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 외에도 조 교수는 〈여유당집〉의 잡문과 시집을 복원하고 개별 저작들에 대한 연대를 고증한 저서 〈여유당집의 문헌학적 연구〉를 출간한 바 있다.

조성을 교수는 "다산 관련 문헌 공부를 한 지 40년이지만 앞으로 갈 길이 아득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근에는 정약용 사후 자손들이 다산의 저술을 정리한 〈열수전서〉를 복원하기 위한 연구의 마무리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은 다산학과 관련 연구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단체) 1인을 선정해 학술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2018년에는 서울대 안병직 명예교수가 수상한 바 있다.

AWARD & SELECTION

김진식·안민호 학생, '2019 대한민국 인재상'

김진식·안민호 학생이 '2019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다. 김진식 학생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과에, 안민호 학생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다.

시상식은 지난해 11월2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 인재상'에는 고등학생 50명과 대학생·일반인 50명 등 총 100명의 인재가 최종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250만원이 주어졌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여 성장해나가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 우수인재들을 발굴하여 격려하고 시상하는 인재 선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2001년 이후 19년간 뛰어난 역량과 도전정신, 사회 기여에 대한 의지 등 종합적 소양을 두루 갖춘 청년 인재들을 매년 선발해 왔다.

지난해에도 전국의 교사, 교수, 학교장, 그 밖의 인사들의 추천을 받은 여러 분야의 청년 인재들에 대해 약 4개월에 걸친 심사 과정을 거쳐 수상자 100명을 선정했다.

김진식 학생은 해양정책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과 도전정신, 사회 기여에 대한 의지를 보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진식 학생은 2019년 '해양수산·환경·안전분야 공공기관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경 재배와 어류 양식을 접목하여 다양한 유기농 농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아쿠아포닉스'를 연구·개발해 해양치유단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8년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최한 '대국민 혁신 IDEA 공모전'에서 '동남권 조선 산업 실직자 재교육을 통한 해상 안전드론 전문가 양성'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 우수상을 받았다.

안민호 학생은 본과 재학 중 권위 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유한재단의 학술연구비 공모에 선정되는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안민호 학생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실습에 참여해 연구팀 '아주 좋은 사람들'에서 연구를 진행하며 SCIE급 학술지 〈정신의학 최신연구(Frontiers in Psychiatry)〉에 논문(논문명: 노인 우울증에서 불안 동반 시의 우울 증상 네트워크)을 게재했다.

EVENT

SW중심대학사업단, '아주 소프트웨어 커리어 페어' 개최

아주대 SW중심대학 지원사업단이 '2019 아주 소프트웨어 커리어 페어'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7일 팔달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국내 IT분야 스타트업 기업들이 부스를 설치,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을 소개하고 채용상담을 진행했다. 참여 기업 관계자들은 스타트업 패널 간담회 시간도 마련해 스타트업 전반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했다.

스타트업 기업 14개사(듀코젠, 사고링크, 아이디어콘서트, 에버스핀, 와이더플래닛, 운칠기삼, 이쿠얼키, 지우컴퍼니, 코딩로봇연구소, 코멘토, 크라우드웍스, 키즈소프트, 플랫팜, 휴톰)가 참가했다. 이 가운데 듀코젠, 사고링크, 아이디어콘서트, 와이더플래닛, 이쿠얼키, 지우컴퍼니, 코딩로봇연구소, 플랫팜은 아주대 학생들과 겨울방학 기간 현장실습을 진행했다.

윤대균 교수는 "스타트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대기업과 공기업에 편중된 학생들의 취업 시야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시스템 운영·보안 전문가, 기획자, 나아가 기업의 관리자로 자신의 커리어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VENT

도구박물관, '남양도호부 사람들의 생업과 경제' 학술세미나

아주대 도구박물관이 지난 11월15일 화성시 남양읍사무소에서 '남양도호부 사람들의 생업과 경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도구박물관은 화성시와 공동으로 남양도호부 콘텐츠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학술세미나에서는 아주대 이상국 교수(사학과)의 ▲문헌자료로 본 남양도호부의 경제와 산업 발표를 비롯해 ▲고고자료를 통해 본 남양도호부의 생업경제 ▲조선후기 남양도호부의 농업기술과 농업 생산 ▲남양도호부 염·어업 및 선운업의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간달산 옥 채광유적의 조사 및 활용방안 ▲문헌자료로 본 남양의 장시와 유통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콘텐츠 개발에 대한 토론은 조성을 아주대 교수(사학과)가 역사학 분야를 맡아 진행했다.토론은 ▲고고학 ▲민속 분야로 나뉘어 마련됐다.

EVENT

국제대학원, '캄보디아 금융인력 양성과정' 수료식

'2019 은행연합회-아주대 캄보디아 금융인력 양성과정 제3기 수료식'이 지난해 12월13일 율곡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아주대 국제대학원·전국은행연합회가 캄보디아 금융 인력 양성을 위해 2017년부터 운영 중이다. 수료식에는 지난 9주 동안 국제대학원에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15명의 참가자들과 아주대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수료생들은 지난해 12월 말 본국으로 돌아가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한국계 은행에서 3달 동안 인턴으로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국제대학원 김병관 원장(사회학과 교수)은 "지난 9주간의 여정을 잘 마친 캄보디아 학생들이 대견하다"며 "2020년 1~3월에 진행되는 12주간의 인턴십 또한 성공적으로 수행해 모두 캄보디아 금융 산업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전국은행연합회와 아주대 국제대학원은 2017년 9월 체결한 협약을 통해 캄보디아에 진출 한국계 은행의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단기 장학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제1기,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제2기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지난해 제3기 프로그램이 여정을 마쳤다. '은행연합회-아주대 캄보디아 금융인력 양성과정'은 캄보디아 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계 은행들의 우수한 신규 인력 충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목표 중 ▲캄보디아의 경제 발전 ▲양질의 교육 제공 ▲파트너십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NEWS >>>

AWARD & SELECTION

교육부 대학진로탐색제 시범사업 선정, '파란학기' 대학가로 확대

아주대가 교육부 대학진로탐색제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대학진로탐색제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자유롭게 진로 탐색활동을 한 다음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아주대 '파란학기제-아주 도전학기 프로그램'이 그 모태가 됐다.
교육부는 지난 2월3일 대학진로탐색학점제 시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시범 사업을 위해 지난해 말 대학들의 신청을 받았고 지원한 38개 대학을 심사했다. 이에 일반대학 7곳과 전문대학 3곳 총 10개 대학을 참여 대학으로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대학들은 올 한 해동안 4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앞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진로탐색학점제의 모태가 된 아주대 '파란학기제-아주 도전학기 프로그램'은 지난 2016년 1학기부터 시작됐다. 파란학기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 도전하고, 이를 통해 인생과 진로에 대한 깨달음과 자신감을 얻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스스로 설계한 프로그램으로 파란학기제에 참여하며 이를 성실히 잘 수행한 경우 3~18학점의 정규 학점을 받는다. 2016년 1학기부터 8학기 동안 총 775명의 학생들이 파란학기제에 참여했다.

AWARD & SELECTION

곽진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곽진 교수(사이버보안학과)가 정보보호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곽진 교수가 활발한 학술 활동을 통해 정보보호를 위한 학술 및 기술의 진흥과 정보보호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표창을 수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곽진 교수는 앞서 한국정보보호학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학회는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꾸준히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며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곽 교수에게 공로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곽 교수가 특히 올해 열린 'NetSec-KR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곽진 교수는 사이버보안학과 소속으로 정보보안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AWARD & SELECTION

이범진 약대 학장, 아시아약학연합 회장 선출

약학대학 이범진 학장이 아시아약학연합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올 1월부터 2년이다.
아시아약학연합(Asian Association of Schools of Pharmacy, AASP)은 지난 1월7일 말레이시아 사알람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아시아 각국에서 온 30여 명의 이사진이 참석했다.
AASP는 2001년에 설립된 학회로 아시아 39개국 약 500개의 약학대학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미래 약학 교육 및 교육 과정, 신약개발 및 다양한 실무 교육에 대한 상호 교류와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본부는 싱가포르에 있다. 아시아약학연합은 매년 신약개발 및 약과학기술 컨퍼런스(AASP conference)와 약학교육 포럼(AASP Pharmacy Education Forum) 등을 개최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아주대 연암관에서 26개국 약 580명의 참가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학술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다.

EVENT

전통시장과 함께 '아주 커넥팅데이'

아주대가 지역사회와 문화를 공유하고 상생하기 위해 '아주 커넥팅데이(AJOU CONNECTING DAY)'를 마련했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이 행사에는 교직원 320여 명을 비롯해 박형주 총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 남문 9개 시장 상인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아주대는 학교 슬로건인 '연결된 세상, 협력하는 지성(Connecting Minds)'을 공유하고 지역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날 행사를 준비해 수원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통하고 지역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아주대는 '아주비전 4.0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전통시장 협력사업, 지자체 상생 협력사업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세부사업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아주대 교직원들은 수원 화성을 둘러보며 수원 지역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을 위해 발행된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 수원 남문 전통시장에서 시간을 보냈다.
박형주 총장은 "지역사회 상생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둘러보면서 역사적 가치를 이해하고, 수원 전통시장에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작은 발걸음을 떼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 전통시장을 찾아준 아주대 교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수원시의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VENT

수원시 공직자 교육, '핵심리더 양성과정' 제6기 입학식

수원시 중견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 과정인 '수원시 핵심리더 양성과정' 제6기 입학식이 열렸다. 이 과정은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이 위탁을 받아 교육 전반을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1월20일 율곡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입학식에는 이번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수원시 공무원 33명과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박형주 총장과 공공정책대학원 김흥식 원장, 권혁성 교수가 함께 참석해 환영했다.
'수원시 핵심리더 양성과정'은 수원시 중견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으로 총 10개월 동안 진행된다. 지난 2015년 2월부터 매해 진행되어 왔다.
박형주 총장은 입학식사를 통해 "낯선 공간에서 여러 분야를 접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으로써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입학생 전원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며 격려와 당부를 전했다.
염태영 시장은 "업무 밖의 영역을 통해 기존의 일을 돌아보고, 동료들과의 이해나 소통하는 자세에 대해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잠깐 멈추어 서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공직자로서의 길을 재점검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VENT

SW중심대학사업단, "소프트웨어 아이디어 모여라"

아주대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이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아이디어를 한자리에 모은 '아주 소프트콘'을 개최했다. 사업단은 지난해 12월9일부터 이틀 동안 아주대 연암관과 팔달관에서 '아주 소프트콘(SOFTCON)'을 열고 전시회를 마련했다. 소프트콘(SOFTCON)은 소프트웨어(SOFTware)와 콘서트(CONcert)의 합성어다.
Ajou SOFTCON은 매 학기 진행되는 소프트웨어학과의 행사로, 소프트웨어학과와 SW연계전공 학생들을 비롯해 주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창작한 작품들을 전시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개발자로서의 노력과 열정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400여 명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시상은 개발시연, 연구과제, ICT융합, SW기초교육, 방문형SW교육(초등/고등) 부문에서 진행됐다.
대회에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을 주제로 한 우수 작품들이 다량 출품됐다. 대표적으로 〈데이터분석 기초 과목〉 전시물의 경우, 통계청 'MDIS 서비스'를 활용해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장을 받은 바 있다.
류기열 SW중심대학사업단장은 "학생과 교수, 멘토, 관람자 모두가 한 학기 동안 힘써 개발해온 여러분의 작품을 놓고 서로 토론하고 교류하면서 모두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란 석좌교수와 함께한 총장 북클럽

지난해 마지막 총장 북클럽이 12월4일 도서관 북카페에서 열렸다. 북클럽은 〈판결과 정의〉의 저자인 아주대 김영란 석좌교수(법학전문대학원)와 함께 하는 '저자와의 만남'으로 구성됐다. 정오부터 1시간30분 동안 이어진 북클럽에는 아주대 학생들뿐 아니라 졸업생과 지역 주민들도 같이 자리했다. 참가자들은 도서관에서 제공한 커피와 간식을 함께하며 박형주 총장, 김영란 석좌교수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판결과 정의 -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사회를 보다〉는 지난해 9월 출간된 책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분석과 성찰을 다뤘다. ▲성희롱 교수 해임 결정 취소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강원랜드 사건 ▲삼성 엑스파일 사건 등 대중의 주목을 받았던 판결 8건이 케이스로 실렸다. 이날 행사에서 김영란 석좌교수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의 법제화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반부패, 그리고 사회적 신뢰에 대한 소신을 전했다.
김 석좌교수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일하며 청탁을 막는 방법을 고민하게 됐고, 법률화 하는 과정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지며 생각보다 큰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됐다"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신뢰 회복'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그리고 교육에 대한 철학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답을 찾는 것보다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을 키우는 교육이 중요하다"며 "직업 교육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로스쿨 체제에서 문학, 역사, 철학과 법 원리적 고찰 같은 본질적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 아쉬움을 느낀다"고 전했다.
박형주 총장과 김영란 석좌교수는 그 밖에도 ▲법관으로서의 경험과 철학 ▲법조계에서의 AI활용 전망 ▲대학 교육의 미래 ▲기억에 남는 판결 ▲법문화 차이와 법학 교육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영란 석좌교수는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법관을 지낸 법조인이다. 2004년부터 6년 동안 대법관으로 일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법관으로 널리 인정받아 왔다. 2011년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을 주도했다. 김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부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총장 북클럽은 2015년 2학기부터 시작되어 이어져온 프로그램으로 총장과 학생들이 한 권의 책을 미리 읽고 정해진 날 간단히 식사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다. 매 학기 한번씩은 저자와의 만남으로 구성된다. 지난 학기에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앤드루 양의 〈보통 사람들의 전쟁-기계와의 일자리 전쟁에 직면한 우리의 선택〉을 함께 읽었다.

대우학원 설립자 김우중 회장 영면

김우중
1936~2019

> 청년들에
> 꿈과 용기 주려
> 애썼던 사람으로
> 기억되고파

학교법인 대우학원의 설립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12월9일 별세했다. 향년 84세로 약 1년의 투병 생활 끝에 연명치료는 하지 않겠다는 평소 뜻에 따라 평화롭게 영면에 들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됐다. 정·재계 인사와 문화·체육인, 옛 대우그룹 관계자들을 비롯해 고인의 뜻과 의지에 공감하는 8000여 명이 빈소에 다녀갔다. 영결식은 12일 오전 아주대학교병원 별관에서 엄수됐고, 유가족과 아주대·아주대의료원 교직원, 전 대우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하게 진행됐다.

김우중 회장은 창업 1세대 기업인으로 나라 안 보다는 밖을, 오늘보다는 내일을 바라본 선구자였다.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에 '하면 된다'의 신념으로 뛰어들었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일에 몰두했다. 다음 세대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본인 세대가 희생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 열심과 헌신의 바탕이 됐다.

김 회장은 1967년 나이 서른에 자본금 500만원으로 섬유회사 대우실업을 설립했다. 대기업도 수출하면 밑진다고 생각하던 시절, 신생 회사 대우실업은 와이셔츠를 비롯한 의류제품을 해외에 팔아 고속성장을 이어갔고 1969년에는 한국 기업 최초로 해외지사를 세웠다. 이후 그는 선진국이 나가 있지 않은 미지의 시장을 계속 개척해나갔고 회사는 경공업, 중공업, 금융업 등으로 범위를 넓히며 성장했다. 창업 후 30년 동안 그는 1년의 3분의2 이상을 해외에 머물며 지구를 240바퀴 도는 강행군을 이어갔다. '사람이 한 군데 미치면 도(道)가 트이게 된다' 라는 신념을 공유하는 이들이 그 길에 함께했다.

> 우리는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경제의 최첨병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내 경우만 해도, 아무도 안 가려 하는 아프리카 오지에 샘플가방 하나만 들고 반 트럭 같은 차 뒤에 매달려 터덜거리며 돌아다닙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곳을 내가 제일 먼저 왔다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 우리가 개척한 나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보다 못 가는 나라가 더 많았습니다. 이런 곳을 우리가 처음으로 들어가서 정식 수교를 맺도록 발전시켰습니다.

말로는 쉽지만 생명의 위태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처음 들어가 성공하면 다른 기업들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991년 7월23일, 신입 사원과의 대화 중)

기업가로서의 사명과 후대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김우중 회장은 오지 의료지원 사업과 기초학문 연구 지원에 사재를 출연했다. 학교법인 대우학원을 설립하고(1977년) 아주대학교에 재정적 뒷받침을 이어온 것 또한 같은 맥락이었다. 그는 생전 아주대에서의 마지막 공식 행사가 된 〈김우중과의 대화-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신장섭 저)〉출간 기념회에서도 청년들에게 힘주어 말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일제시대 때 태어나 해방 후 한글로 교육받은 첫 세대에 해당합니다. 부모 세대의 희생 덕분에 해방된 조국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무언가 도움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일찍이 사업에 투신했고 세계를 무대로 성취를 향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국가와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가장 값진 방법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선배 세대로서 아쉽고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의지를 모아 여러분이 선진 한국의 첫 세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거든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계를 무대로 경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우중 회장은 '세계경영'의 뜻과 노하우를 젊은이들과 나누고자 했다. 마지막 열정을 쏟아낸 곳도, 유지로 남긴 뜻도 바로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GYBM(Global Young Business Manager, 청년사업가 양성교육)' 이었다.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를 키우겠다는 목표로 젊은 인재를 발굴해 강도 높은 어학과 직무 교육 등을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현재 베트남,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에서 운영되고 있다. 수료생들은 전원 취업에 성공했고, 현지 전문가로서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다. 김 회장은 건강이 악화되기 전 주로 베트남에 머물며 GYBM 학생들의 사감, 선생님, 대부이자 할아버지를 자처했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뿐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을 돌보고, 현지 사업가나 기업들을 살피며 학생들의 진로 개척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 청년들과의 교류는 그의 마지막 보람이자 행복이었다.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기업가는 바로 이런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순간 한순간이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을 거점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이 나라에 세계를 담아서 봐야 합니다. 그 나라의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거점은 인도네시아라고 하면서 마음은 서울에 두고, 한국의 눈으로 세계를 보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 열심히 하다 보면 남다른 생각을 얻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쉬어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더 좋은 발상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2016년 10월11일, 2017년도 GYBM 연수생과의 대화 중)

1936~2019

김우중 회장은?

1936년 대구에서 태어나 경기중, 경기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부흥부에 몸 담았다가 대학 시절 장학금을 받은 인연으로 무역회사 한성실업으로 자리를 옮긴다. 한성실업에서 7년간 무역 실무를 익힌 뒤 1967년 만 30세의 나이에 대우를 설립한다. '세계경영'의 뜻을 품고 신흥 시장 공략에 나선 지 30년 만에 그룹을 신흥국 출신 최대 다국적 기업의 반열에 올려 놓는다. 1983년 기업인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국제상업회의소 '국제기업인상'을 받았고 저서로는 에세이집〈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가 있다.

1936~

1936	대구 출생
1960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60~1966	한성실업 재직
1967	대우실업 설립
1969	한국 기업 최초 해외지사 설립(호주 시드니)

1970~

1970	대우실업 대표이사 사장
1977	학교법인 대우학원 설립
1979~1993	한국무역협회 회장
1982~1999	대우그룹 회장
1983	국제상업회의소 국제기업인상수상

1989~

1989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출간
1999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2010	GYBM 양성사업 시작

정리 **이솔** 커뮤니케이션팀

참고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김우중과의 대화〉(신장섭, 북스코프, 2014)
〈김우중 어록-나의 시대 나의 삶 나의 생각〉(김우중, 북스코프, 2017)

AU 50·100 1973 · 2023 · 2073 GREATIVE
숄선give

2대를 잇는 나눔의 실천

이재환 대표 부친의 뜻 이어 1억 기부

이재환 백광금속 대표가 지난 12월 아주대에 1억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이 기금은 그의 부친 이종철 아경장학재단 이사장의 이름을 딴 '이종철 장학'으로 아주대 학생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아버지 이종철 이사장과 그 뜻을 이어받은 이재환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글 권라희

이종철 아경장학재단 이사장은 조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부를 실천해 왔다.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기부뿐 아니라 복지관과 수녀원, 지역사회를 돕는 데에도 꾸준히 관심을 쏟아왔다. 그가 쾌척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아주대에는 지난 2015년 '이종철 장학' 제1기 장학생이 탄생했고 지난해 제10기 장학생까지 이어졌다. 한 학기 당 4명이었던 장학생은 이제 한 학기당 10명까지 늘었다. '이종철 장학' 기금은 총 5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2년 예순이 넘는 나이에 아주대 경영대학원 최고위과정에 입학하면서 시작된 학교와의 인연으로, 그는 지난 2018년부터 아경장학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아경장학재단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장학재단으로 지난 2007년 출범 이후 아주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연구비 및 시설 개선 지원 등에 앞장서 왔다.

"최고령 학생으로서 회사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영대학원에서 공부는 물론, 사람을 얻었다는 기쁨이 컸습니다. 동기들은 학업에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좋은 대화 상대였어요. 아주대와 동기들에게 받은 것이 많은 만큼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게 결국 기부로 이어졌습니다."

기부는 '중독'이라고 말하는 이종철 이사장, 그는 경상북도 군위군 출신으로 젊은 시절 연고 하나 없는 서울로 상경했다. 무작정 부딪히고 뛰어들어야 했던 시절이었다.

"신문 배달, 인쇄소 청소 등 안 해 본 일이 없습니다. 힘든 일들을 극복하고 난 뒤 기업을 운영하게 됐고, 차츰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인생과 주변을 되돌아보게 되더군요. 돈을 의미 있는 데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부와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의 전방위적 나눔의 실천은 장남인 이재환 백광금속 대표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 그 역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고 있으니 말이다.

이재환
백광금속 대표

이종철
아경장학재단 이사장
경영대학원 최고위과정 43기

DONATION NEWS >>>

"아주 학생들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기를"

주일로 연구정보처장 /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교수

주일로 연구정보처장(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교수)이 학부생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5000만원을 기탁했다.

지난 2014년에도 아주대 봉직 20년을 맞아 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1억원을 기부했던 주일로 처장은 지난 1993년부터 아주대 교수로 재직하며 의과대학 학장, 만성염증질환연구센터 소장, 약리학교실 주임 교수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제6회 강래성 우수 논문상 시상

'제6회 강래성 우수논문상' 시상식이 지난 10월31일 마련됐다. 이 논문상은 강래성 기부자가 쾌척한 기부금을 재원으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대학원생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제6회 강래성 우수 논문상 수상자로는 양성모 학생(물리학과)과 배성훈 학생(약학과)이 선정됐다.

우수 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1인당 250만원씩 총 500만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됐다. 강래성 회장은 지난 2013년 아주대에 1억원을 기부한 이후 매년 500만원씩 대학원 우수 논문상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양성모 학생은 편광을 이용한 물성 분석 연구에서 두각을 나타낸 점이 높이 평가됐다. 해당 연구와 관련해 양성모 학생은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8편(SCI(E)급 4편 포함)의 논문을 게재하고, 또 저명 학술대회에서 21편(국제학술대회 11편 포함)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논문을 통해 Imidazole계 약물의 항진균제로서뿐 아니라 유방암 치료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편, 장학금을 받은 양성모·배성훈 학생은 강래성 회장의 "모아 놓는게 남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게 남는 것"이라는 뜻을 이어받아 아주대 기부 캠페인인 '1-1-1 캠페인'에 동참했다.

선경최종건재단 장학금 전달식, 학생 CES 참가 지원

선경최종건재단 장학금 전달식이 지난 12월30일 율곡관에서 열렸다. 선경최종건재단은 아주대의 교육 철학에 공감, 학생들의 글로벌 현장 교육을 위해 장학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 장학금은 학생 4인의 CES 참가를 위해 활용된 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2020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참가자로 선발된 학생들과 박형주 총장, 강경란 대학교육혁신원장, 이성주 창업교육센터장, 최승철 신소재공학과 교수, 임군진 대학교육혁신원 팀장이 참석했다. 박형주 총장이 재단을 대신해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가전 전시회인 CES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1월7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됐다. 아주대 학생 4명과 박형주 총장은 CES를 함께 참관했다.

오경진(응용화학생명공학과), 양보경(건축학과), 조수연(문화콘텐츠학과), 김태운(미디어학과) 학생이 선발됐다. 학생들은 CES가 열리는 라스베가스에 이어 샌프란시스코로 이동, 실리콘밸리와 인근 지역의 기업·대학을 방문했다. 학생들은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됐다.

2019-2학기 기부자 감사패 전달식

학교 발전을 위해 2019학년도 2학기에 1000만원 이상을 기부한 기부자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지난 11월21일 마련됐다.

율곡관에서 진행된 감사패 전달식에는 아주대에 기부금을 쾌척한 ▲송현호 명예교수(국어국문학과) ▲서정혁 대표(㈜메리엔비 대표이사) ▲오영호 동문(공학대학원 CKO 11대 회장, 더아리엘 대표이사) ▲유영숙 동문(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57기 회장, ㈜코코 대표이사)이 참석했다.

송현호 명예교수는 국어국문학과 외국인 학생 유치기금, 서정혁 대표는 마티덤 장학 장학기금으로 기부했고, 오영호 동문은 공학대학원 발전기금, 유영숙 동문은 50주년 기념관 건립기금으로 각각 1000만원을 쾌척했다.

박형주 총장은 "기부자들의 뜻에 따라 기부금을 목적에 맞는 곳에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DONATION NEWS >>>

"여력 되는 한 꾸준히 기부하고파"

이용운 셀앤바이오 대표

이용운 (주)셀앤바이오 대표가 1억원 기부를 약정했다. 아주대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재학생인 이용운 대표는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의 장학기금과 연구비, 그리고 아주대 개교50주년 기념관 건립기금으로 이 기부금이 사용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주)셀앤바이오는 2017년 설립된 회사로 독(동물독, 광물독, 식물독)과 천연물을 이용한 화장품, 약침, 의약품의 원료 및 완제품을 연구·개발·생산하는 회사다. 이 회사는 아주대의 가족기업으로,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과 약학대학, 의과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천연물 기반 신약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얘들아, 학교에서 아침먹자

아침은 '거르는' 것보다
'든든하게'가 더 잘 어울립니다.
학생들의 아침에 잃어버린 아침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아침의 큰 상(賞)!
아침한상으로
꽉 찬 하루를 선물합니다.

아침든든아주 프로젝트

'아침든든아주'는 학생들이 아침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학교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후원자들의 기부금으로 마련되는 아침식사는 1천원의 비용으로 학생들에 제공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와 건강 모두를 잡을 수 있도록 많은 후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운영방법
- 학기 중 매일 아침시간
- 교내 식당에서 조식을 1천원에 제공
- 후원금으로 가격보조

기부방법
- 기부계좌 : 국민은행 203901-04-011558(예금주: 아주대학교)
- 약정서 작성 후 기부계좌로 입금
- 홈페이지 : http://ajousarang.ajou.ac.kr
- 문의 : 031-219-1646~9

아경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2019년 2학기 아경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이 지난 11월 6일 율곡관에서 열렸다. 2학기 아경 장학생으로는 28명의 학생이 선정됐다. 이종철 아경장학재단 이사장이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행사는 ▲사업경과 보고 ▲장학증서 수여식 ▲감사의 글 낭독 ▲격려사 ▲축사 ▲감사패 전달 ▲폐식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학기에는 총 28명의 학생들이 65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받았다. 아경장학재단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가 설립한 장학재단으로, 지난 2007년 4월 설립 이후 484명의 학생들에게 14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그밖에도 중증외상센터 지원과 잔디구장 건립 지원을 비롯한 아주대의 다양한 분야에 기부를 이어왔다.

아경장학(최고)
양동현, 장민형, 조우혁, 송인권, 황인주, 한진주, 양나영, 서우연, 공수진, 이상문

비전장학
최현희, 류강섭

아경글로벌장학
ZHOU ZIQING, FANG YAQI, XING LIXUE, CUI XIXI, LI ANNA, LIU YUHANG, GANBOLD UYANGA, YUSUFOVA MUNISA, LI WENHAO, ABDUVALIEV DOSTONBEK,, PHAM,MINH NGUYET, HAILE TEGEGNE TESFAYE

아경포럼장학
심상희

아경축구부장학
김동환, 최세민, 박찬빈

이광수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2019년 이광수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지난 11월29일 열렸다.국제대학원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 6명과 일반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 1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이광수 기부자(세무법인 우리 대표세무사)는 아주대 경영대학원 최고위과정 제29기 졸업생으로, 지난 2014년부터 총 3000만원의 장학금을 약정, '이광수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아주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광수 기부자는 "가족의 품을 떠나 꿈을 찾아 한국에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칠 때가 많을 것"이라며 "유학생들이 한국의 정을 느끼고 한국으로 유학 오게 된 목적을 꼭 달성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장학금을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Donors

1년에 250명의 학생에게 12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하려면 매달 약 2500만원의 모금액과 2500여 명의 기부가 필요합니다(아주사랑111 1구좌 기준).
전화: 031-219-2107~9 / 2099 **메일:** ajousarang@ajou.ac.kr 약정서 사진 혹은 스캔 송부
팩스: 031-219-1623 **우편:**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 아주대학교 대학발전팀 〈111 아주아주클럽〉 담당자 앞

1-1-1캠페인

(주)성호스텐_김기권
김동근
김정규
김경란
김경원
김덕훈
김두경
김명구
김민구
김병돈
김병욱
김석윤
김선숙
김선영
김신구
김영복
김영일
김은양
김익균
김주성
김진모
김태석
김하중
김해순
김희정
경민호
경정현
고강현
고경현
고민진
고병수
고병호
고봉석
고순재
고우리
고유경
고재용
고재욱
고지애
공태준
곽기인
곽병철
곽원종
구성현내과의원
구유회
구재군
권기종
권대진
권만구
권상호
권순선
권순정
권순호
권영민
권영숙
권오성
권오일
권오종
권오필
권용금
권우택
권이수
권익주
권익진
권인철
권재근
권주빈
권주연
권혁용
권혁천
권형철
길기남
길민주
길윤규
김가영
김건
김경희
김관균
김구용
김국수
김규봉
김규철
김근수
김근용
김근표
김근회
김기숙
김기준
김기태
김길성
김나현
김남포
김다혜
김대용
김대현
김대홍
김덕영
김도선
김동규
김동석
김동완
김동익
김동현
김두용
김명수
김명현
김명호
김명희
김문석
김미경
김미선
김미숙
김미순
김미옥
김미자
김민구
김민선
김민우
김범수
김병곤
김병기
김병섭
김병준
김병진
김병태
김복순
김복희
김봉배
김봉춘
김상문
김상욱
김상진
김선숙
김선이
김선자
김선화
김선희
김성룡
김성룡
김성용
김성우
김성원
김성헌
김세기
김소운
김송암
김수근
김수영
김용갑
김용경
김용기
김용일
김원식
김유권
김유신
김윤경
김은규
김은선
김은숙
김은주
김은한
김은호
김은희
김인수
김일수
김일숙
김장훈
김재경
김재은
김재정
김재현
김재호
김정선
김정선
김정성
김정수
김정우
김정헌
김종석
김종숙
김종준
김종태
김종학
김종현
김주래
김주석
김주현
김중구
김지수
김지은
김지호
김진평
김진성
김진수
김진안
김찬우
김창규
김창수
김창욱
김창조
김창주
김창중
김창회
김탁곤
김태식
김태윤
김태일
김태종
김필기
김한솔
김한수
김한중
김한규
김현
김현기
김현덕
김현미
김현섭
김현우
김형규
김형우
김형준
김혜선
김혜영
김혜정
김홍구
김홍찬
김효주
김흥수
김흥식
김희선
김희연
나창용
나충주
나태영
나환수
남경숙
남경택
남궁규태
남미향
남상균
남상신
남현우
노동현
노시평
노은란
노진형
노찬규
노희정
다인금속
도정열
도학순
라경미
류승우
류연철
류원대
류인환
류재안
류종규
류홍천
마명섭
마인화
맹선아
맹은경
명현수
목익수
문경수
문경임
문병희
문성매
문수향
문영준
문유정
문은표
문재호
문태심
문형열
문혜원
미래공조(주)
민경도
민병윤
민병현
민종식
민준기
민찬규
민철기
민팽기
민형기
박경호
박관수
박규태
박근우
박기준
박대규
박대열
박대원
박동진
박만규
박맹상
박명수
박문산
박문순
박민경
박민구
박범
박병권
박병훈
박상오
박상철
박상호
박상훈
박선금
박선화
박성숙
박성윤
박성진
박수경
박순식
박순옥
박승설
박신혜
박신태
박애란
박양숙
박영동
박영동
박영무
박영원
박영철
박예리
박용배
박용환
박원규
박유창
박은주
박은준
박인규
박인기
박일석
박일임
박재경
박재관
박재길
박재범
박재연
박재홍
박정옥
박정웅
박정훈
박종경
박종민
박종석
박종설
박종식
박종용
박준화
박지인
박지일
박창동
박철균
박태원
박해심
박형범
박형진
박혜정
방영무
방강명화
배공주
배낙식
배두열
배상권
배성훈
배수환
배영환
백경원
백규호
백금순(모)
백미아
백미자
백승천
백승환
백윤기
백은주
백정길
백처현
베스트비뇨기과의원
변경수
변동진
변승환
변희주
보광토탈이엔지(주)
봉선호
비테에스경영컨설팅
사운드팩토리
서귀암
서명원
서문호
서봉원
서봉현
서석재
서성택
서애경
서영환
서은원
서은지
서일준
서장남
서정혁
서창희
서형석
서형탁
서화덕
서희석
석명숙
선우명훈
선종연
설용훈
성민제
성현
세이프건설(주)
소의영
손연진
손정훈
손종진
손태식
손현숙
송경민
송경수
송경수
송규현
송기상
송기정
송기찬
송길성
송명동
송미숙
송병섭
송석희
송성용
송수곤
송영섭
송영우
송완재
송윤희
송재경
송재길
송혜영
송호영
신경렬
신경숙
신동원
신동주
신동철
신동희
신두철
신명호
신병우
신성욱
신순옥
신승수
신영철
신유선
신은영
신의수
신재수
신정철
신종대
신준한
신지연
신진옥
신창효
신채창
신하영
신항수
신현국
신현남
신현숙
신현주
신형섭
신호준
심강희
심우성
심우철
심인석
심재국
심정철
심정현
심현중
안명이
안민주
안병민
안병열
안보라
안보람
안선호
안성남
안세훈
안숙
안영숙
안영찬
안영환
안은경
안재기
안준엽
안지연
안현주
양명랑
양민수
양병호
양봉식
양승경
양승권
양승렬
양시영
양영재
양원석
양인모
양재호
양지윤
양진호
양춘수
양태광
양태석
양태호
양호진
양화석
양희성
어미자
어승규
어윤하
엄경이
엄우용
엄윤성
엄정완
엄준희
엄경훈
염동일
예홍진
오귀석
오귀훈
오명순
오명임
오상경
오상윤
오성원
오세창
오세태
오수근
오순아
오애경
오영태
오영택
오은숙(모)
오인호
오재영
오정락
오현우
우도겸
우동윤
우리디지털테크
우병주
우성운
우신석
우완식
우정석
우종채
우주통상
우춘섭
원순재
원신혜
원지숙
위규범
위애숙
위정식
유계성
유광열
유권종
유기상
유명호
유문숙
유미라
유병대
유병수
유상원
유선영
유성렬
유성재
유연신
유영문
유재민
유재석
유태성
유한용
유충상
유충열
유태현
유티정보(주)
유한준
유호상
유희석
유희찬
윤경미
윤경희
윤백
윤상억
윤석희
윤순장
윤승현
윤영민
윤영준
윤원식
윤일수
윤정용
윤종엽
윤준구
윤중근
윤천웅
윤택준
윤필영
윤현진
윤현철
윤혜경
윤혜정
윤화진
윤황
이경진
이계훈
이관수
이광용
이광호
이광호
이교림
이교범
이규환
이근
이근채(부)
이기근
이기영
이기중
이길형
이길호
이김형
이나영
이남주
이남희
이노경
이노희
이대현
이도경
이도섭
이동규
이동렬
이동원
이동진
이문근
이미선
이미애
이미영
이미희
이민
이민섭
이민호
이병철
이병조
이병채
이보선
이분열
이삼주
이상성
이상순
이상해
이상헌
이상훈
이상화
이성원
이수연
이수한
이순기
이순범
이순섭
이순영
이순원
이순선
이순숙
이순정
이승현
이승호
이시영
이신영
이신형
이싱주
이연실
이연희
이영경
이영국
이영록
이영옥
이영주
이영채
이영철
이영현
이예리
이예림
이왕형
이용구
이용수
이용원
이용훈
이우근
이우암
이원돈
이윤진
이은경
이은규
이은숙
이은정
이은형
이은희
이은희
이이환
이일주
이재규
이재길
이재숙
이재영
이재익
이재호
이정원
이정준
이정태
이종호
이종훈
이종화
이주연
이주한
이준기
이준범
이준섭
이준영
이준원
이준혁
이준호
이지복
이지상
이지선
이지용
이지윤
이진구
이진우
이찬구
이찬규
이찬욱
이찬욱
이창근
이창수
이창용
이창우
이창원
이창훈
이채우
이철기
이충균
이태웅
이태한
이태희
이택희
이필우
이하영
이한석
이해나
이해준
이향희
이현규
이현령
이현상
이현석
이현주
이현진
이현찬
이형무
이형민
이형익
이호찬
이화춘
이희련
인정근
인정숙
임경빈
임경환
임근찬
임기영
임대혁
임동하
임명재
임명훈
임문채
임병수
임병조
임석철
임선일
임성욱
임성혁
임연희
임영무
임인경
임인재
임재성
임재익
임재혁
임종석
임지석
임창규
임채원
임춘기
임춘성
임태성
임홍식
임홍순
임광열
장기순
장병정
장석민
장선규

장소영
장영수
장영하
장외숙
장은미
장주형
장준복
장준영
장중순
장지선
장진엽
장진영
장진태
장현순
장혜영
장혜주
장희철
전경희
전근열
전병관
전병도
전병수
전상준
전성일
전순애
전승민
전용호
전우영
전윤수
전정욱
전준범
전준하
전진수
전창규
전형우
전희옥
정경숙
정규순
정규식
정규창
정기정
정기현
정남호
정대식
정도현
정동열
정두호
정말희
정명화
정미숙
정민주
정방근
정병량
정병화
정상구
정서진
정석모
정선교
정성운
정순임
정슬아
정승명
정양호
정연호
정영근
정영란
정영문
정영채
정유선
정유찬
정윤석
정은경
정은미
정은선
정은영
정은혜
정은혜
정이숙
정인묵
정인숙
정인숙
정재권
정재성
정재원
정재준
정종권
정준모
정지혜
정창경
정창인
정춘용
정충남
정태선
정학희
정한웅
정해승
정해연
정해용
정해욱
정해준
정현정
정혜승
정혜인
정희채
조걸훈
조경숙
조광국
조광순
조규태
조규희
조길원
조동식
조백형
조보희
조봉호
조성례
조성식
조소영
조수진
조양숙
조영록
조영욱
조영호
조용배
조용혁
조은아
조은주
조은하
조인성
조중열
조중환
조찬우
조창형
조충희
조하연
조한식
조현규
조현우
조현우
조형규
조혜성
조호진
조환명
조흥재
주광진
(주)라라전자
주식회사 엔에프씨
주창원
지승렬
진명주
진성호
진주현
진창수
차상훈
채교석
채규창
채유현
채장범
채정아
채철수
천동필
천명길
천순자
최경수
최관수
최광순
최광영
최근배
최기식
최기원
최도연
최모석
최병무
최병욱
최선숙
최성린
최세선
최소명
최수연
최수영
최숙희
최순은
최승순
최승현
최신영
최영두
최영재
최영호
최영환
최용훈
최용훈
최원덕
최유진
최윤호
최용현
최은미
최재승
최재정
최점례
최정영
최정재
최정주
최종식
최종욱
최준환
최중원
최진구
최진영
최진오
최진형
최창기
최충식
최태근
최희선
추소정
추호석
탁동현
표준상
하정임
한관희
한기복
한기상
한동규
한미란
한봉희
한상욱
한승엽
한영민
한은숙
한자성
한재광
한정석
한정숙
한종인
한종호
한형옥
한호
한호윤
한화영
한효식
함건주
함경숙
허려화
허숙현
허순영
허영일
허인영
허진
허택만
현대지질
현성미
현정은
홍광영
홍기영
홍남기
홍대의
홍범준
홍봉숙
홍석범
홍성기
홍성만
홍성봉
홍성주
홍성호
홍승열
홍영수
홍영표
홍원인
홍원철
홍윤기
홍진태
홍철현
홍한표
황경주
황규호
황덕모
황두성
황민숙
황민하
황선영
황성욱
황성조
황안일
황우성
황원복
황윤근
황윤상
황인극
황인숙
황정윤
황지현
황진연
황찬원
황창순
황철환

발전기금

(주)셀앤바이오
(주)시소아이티
(주)플랫팜
경영대학원
최고위 59기
곽기호
구유회
김건식
김경희
김권기
김근회
김기문
김기현
김문석
김성중
김영재
김영태
김재섭
김주연
김지희
노항배
도병원약국
문승경
박지원
박철민
박한나
법무법인 이강 이종현
신유리
신형섭
양지윤
오은애
원수명
유경호
유경화
유재석
이가희
이선형
이용구
인정숙
잠언의료기
장성현
장영수
전부열
정말희
정수웅
정은선
정재원
조재현
진성호
최영찬
최희자
크리에이트립
한준
황철환

장학금

(주)나노렉스
(주)넥센특관사업
(주)두아메디칼
(주)물로스관광여행사
(주)디자인아띠
(주)베스탤라랩
(주)섬김과나눔
(주)성호스텐_김기권
(주)시소아이티
(주)에이피피
(주)엠투브
(주)참존
GS25아주대점
IT융합대학원동문회
갈원모
감동길
강동완
강미애
강승룡
강승현
강인한
강태규
강태현
강홍민
고광철
고동식
고동준
고승일
고영준
고영표
고인용
구건회
권기대
권대진
권동훈
권진상
권현정
금교륜
금동수
김경희
김계선
김남훈
김도영
김동연
김두영
김명남
김명덕
김명현
김무림
김무송
김문규
김민수
김상선
김서용
김수용
김숙영
김승범
김양현
김연수
김영아
김영중
김영진
김용구
김유복
김윤기
김은경
김일수
김종완
김준환
김중권
김지희
김진우
김진욱
김창균
김철수
김춘구
김충종
김태갑
김태균
김태욱
김하성
김한나
김현지
김형진
김효선
김흥환
나창운
노일호
노항배
노희철
더진국아주대점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디자인펌킨
류덕수
류인환
맹순호
목익수
무교동일품낙지
문경식
미래공조(주)
민경도
민경준
박건수
박선용
박선용
박성식
박승진
박승회
박영석
박일기
박제현
박종기
박철민
박태웅
반수형
배경민
배성준
배승환
배형식
배형식
백경하
백소현
서성일
서승범
서종택
서창배
석광열
석용수
선준규
성만경
성정경
셰프의 고깃집
소고
송희
슈아스포트테크(주)
신동하
신병철
신종범
신호연
심미영
아랑장학회
아주대학교 소비조합
안창준
안치규
양승철
양승철
양정배
양창윤
엄기영
연명호
오상준
오용재
오충엽
오혜령
왕재선
왕정현
우정바이오
우찬명
원치호
위영철
유니온플라워
유한영
유해성
유현주
윤재홍
이강준
이건화
이경재
이계주
이광용
이광필
이군상
이기공
이기형
이덕균
이동기
이동렬
이동훈
이만성
이만호
이명호
이미혜
이민호
이병호
이상엽
이상원
이상현
이성식
이성환
이승희
이승희
이언주
이영경
이영철
이영호
이용
이용운
이용혁
이윤종
이은화
이재충
이정우
이종수
이주철
이주현
(배우자 최영랑)
이주홍
이준은
이진식
이찬해
이창우
이철희
이쿠얼키(주)
이학중
이형조
이효걸
임동하
임학수
장길수
장석준
장용호
장은혜
장준호
장호
전성환
전용현
전재우
정광면
정서진
정선희
정소망
정순모
정운규
정지호
정진황
정찬환
정현재
제이엠코퍼레이션
조남진
조성철
조영상
조윤진
주식회사 두두인테내
셔널
차환윤
채수현
총동문회(아주대학교)
최경덕
최기주
최남운
최문호
최병철
최상호
최석권
최종영
최중호
최창호
추다은
하종수
하혜영
한상규
한상엽
한진철
한창규
함경민
허성철
현인환
홍순호
황교민
황보홍구
황종태

가나다 순
2019.12~2020.01

1인-1개월-1만원으로 소중한 장학금을!

아주아주 기분 좋은

약속

아주사랑 111

1년에 250명 이상의 학생에게
12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아주사랑111>에
지금 참여하세요!

아주대학교

아주사랑 111

연 250명, 12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아주사람'들의 따뜻한 문화입니다.

10주년을 맞은 〈1-1-1 프로그램〉.
이제 〈아주사랑111〉로
더 크고 단단하게 새로운 10년을 계획합니다.
00학번~10학번, 젊은 동문의 참여와
순수한 '아주사람'의 지원과 사랑을 기다립니다.

단 1만원이라도, 단 1회라도 깊이 간직하고
크게 키워내겠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전화	031-219-2107~9/2099로 전화주시면 기부상담 및 구두약정 가능
인터넷	대학발전팀 홈페이지(http://ajousarang.ajou.ac.kr)에서 온라인약정 클릭
이메일	ajousarang@ajou.ac.kr 로 약정의사 표시
팩스	031-219-1623으로 약정의사 표시
CMS 자동이체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일정기간 자동이체로 기부 참여 (세부사항 전화문의)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아주사랑' 친구 추가 후 문의

도전은 파란학기제의 핵심
인생은 파란학기제의 연속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획하고 설계하는 것.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내고 도전해야 하는 것.

아주대학교 파란학기제는 세상과 참 닮아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좋겠다, 파란학기제가 있어서!"
그래서 후배들은 준비합니다.
더 깊이있는 앎을,
더 커다란 삶을.

장강복 | 생물공학과 85학번
KBS 〈인간극장〉, 〈한민족 리포트〉등을 제작한 다큐멘터리스트입니다. 201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대상 수상작인 〈KBS스페셜 – 플라스틱 지구〉를 연출했습니다.

정다빈 | 국어국문학과 12학번 (좌)
송윤근 | 문화콘텐츠학과 12학번 (우)
파란학기제를 통해 웹드라마 제작 프로젝트에 도전, 학기 후 '밤부(bamboo) 네트워크'를 창립했습니다. 애청자가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스토리텔링 시스템을 기획했습니다.

〈파란학기제〉는 수업의 주체와 주도권이 학생에게 주어지는 도전 학기 제도입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목표와 도전 과제를 기획하면
이를 실현할 기회, 방법, 비용까지 지원하는 아주대학교의 학점 취득 프로그램입니다.

아주대학교

031-219-2021
www.iajou.ac.kr